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白河 · 鳥羽院政期
院의 對外貿易과 院近臣
- 『長秋記』 長承 2년 8월 13일 기사를 중심으로 -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이 소 현

白河 · 鳥羽院政期
院의 對外貿易과 院近臣

- 『長秋記』 長承 2년 8월 13일 기사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수 철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이 소 현

이소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2월

위 원 장 이 은 정 (인)

부위원장 박 훈 (인)

위 원 박 수 철 (인)

국문초록

『장추기(長秋記)』 조쇼(長承) 2년 8월 13일의 기사는 상황(上皇, 院)의 권위를 내세운 간자키 장원(神崎庄)측과 고대 관리무역체제의 핵심 기구인 다자이후(大宰府) 사이에 벌어진 무역권 갈등을 기록했다. 간자키 장원은 규슈 서북부의 히젠 국(肥前國) 간자키 군(神崎郡)에 위치한 연해 장원으로, 9세기부터 대대로 원에게 상속되어 내려온 유서 깊은 원령 장원이었다. 조쇼(長承) 2년(1133) 간자키 장원 측은 송 상인 주신(周新)의 무역선이 자기 장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상황의 원선(院宣)을 근거로 서해도(西海道) 9국 2도(九國二島)를 관할하는 상급 행정기관이자 외교·무역기구인 다자이후의 개입을 거부했다. 10세기 중반에 완성된 고대 관리무역체제의 규정에 따르면, 일본에 도착한 무역선은 다자이후의 검령을 거친 후 조정의 명령에 따라 조정의 관사(官司)에 필요한 무역품을 조정에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간자키 장원은 원정기(院政期) 최고 권력자인 원(院)이 소유한 원령 장원(院領莊園)이었음에도 국가 권력이 정한 관리무역체제의 규정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고대의 질서가 변질되고 소멸해 가는 고중세 이행기의 시대상을 잘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원정기 왕권 집행자인 원이 국가적 무역관리의 바깥에서 대외무역에 접근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장추기』 조쇼 2년 8월 13일 기사는 국가적 무역관리의 변질과 종료라는 맥락 안에서만 해석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간자키 장원 측에서 다자이후를 배제하고자 했던 것을 별다른 고민 없이 장원영주이자 원의 근신(院近臣)인 다이라노 다다모리(平忠盛)의 일탈적인 이익추구 행동으로 수렴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다이라노 다다모리를 벗어나 그 배후에 있는 원으로까지 시야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의 의미가 더욱 큰 맥락 안에서 논의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사건을 바라보는 초점 자체는 여전히 대송무역(對宋貿易)의 전성을 누린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淸盛)의 아버지이자 원에게 봉사하여 중앙 정계에서 성공을 거둔 무사라는 다다모리 개인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다모리 개인의 돌출된 특별한 면모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12세기 초에 간자키 장원에서 원이 주도하는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이 사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다자이후와 다자이후가 관할하는 하카타 주변 지역의 정세, 원청 내부의 정치적 지형, 원 권력의 권문(權門)적인 면모 등 시라카와 · 도바 원정기(白河 · 鳥羽院政期) 역사상의 다양한 측면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장추기』 기사 속 인물들의 당시 입장을 분석하는 작업은 조쇼 2년 8월 13일 기사의 서술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서술자 미나모토노 모로토키(源師時)의 관점을 상대화함으로써 기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그동안 서술자 미나모토노 모로토키와 최초 문제 제기자이자 다자이후 장관인 후지와라노 나가자네(藤原長實)의 입장은 비교적 새로운 세력인 다이라노 다다모리와 대립하는 기존 질서의 옹호자로서 파악되었다. 하지만 후지와라노 나가자네는 원근신으로서 원에게 봉사함으로써 기존 가격(家格)을 뛰어넘는 관위 승진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다모리와 한데 묶일 수 있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단순히 나가자네를 다다모리와 대립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로토키와 같은 범주의 인물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첫 번째 실마리는 미나모토노 모로토키의 문제의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모로토키가 『장추기』 기사 속에서 다이라노 다다모리를

비판하는 근거로 든 것은, 무역의 가부는 선지가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의 위반이었다. 12세기 초 다자이후 관리무역체제의 쇠퇴 양상을 보면 문면 그대로 이 원칙의 위반이 문제의 원인은 아니었다. 이미 다자이후 관인들조차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태가 빈발하는 상황이었다. 또 애초에 간자키 장원측이 원선이라는 막강한 권위를 내세워 다자이후의 개입을 거부하게 된 것은 다자이후가 관내의 국아(國衙)와 사사(寺社)를 통솔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즉 다자이후가 기존의 규칙대로 관리무역의 절차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무역 상인과 무역품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다자이후 관내의 혼란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과 무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간자키 장원측은 다자이후 장관에게 항의를 받을 정도의 무리를 해서라도 다자이후 개입의 전면 거부에 나섰던 것이다. 모로토키의 비판은 다이라노 다다모리라는 개인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원, 나아가 전제적인 권력에 기반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원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향해 있었다.

다이라노 다다모리는 시라카와·도바 원의 비호 아래에서 해상 세력으로 성장했다. 다이라노 마사모리 이래로 이세 헤이시(伊勢平氏)가 서국(西國)의 제해권을 확보하게 된 것에는 조정으로부터 해적 추토사(追討使)로 보임되었던 영향이 컸다. 추토사로서의 권위를 바탕으로 서국의 해상 세력을 헤이시의 세력으로 조직함으로써 해상교통을 장악하고 수병을 확보했다. 다다모리가 해적 추토사로 임명되는 데에는 시라카와·도바 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마사모리·다다모리 대의 헤이시의 정치적 지위 상승 또한 마찬가지였다. 원과 다다모리 이전까지의 헤이시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조쇼 2년 간자키 장원의 일 역시 다다모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원의 의향을 받아서 실행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모로토키

의 서술이 시사하는 대로, 다이라노 다다모리가 원의 근신으로서 원의 권위에 기대어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일탈적인 이익추구활동을 벌인 것은 아니다. 원선을 참칭하기는커녕 오히려 원의 지시 혹은 묵인이 배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모로토키의 서술을 상대화하면서 그동안 사료 해석에서 누락되어 왔던 사건 당사자, 후지와라노 나가자네의 입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원정에 대한 비판이라는 모로토키의 문제의식과는 달리, 이 문제를 '문제'로 만든 나가자네가 문제 제기의 근거로 표방한 것은 '면목(面目)'의 실추였다. 이 '면목'은 다자이후 장관으로서의 권위와 원근신으로서의 입지 양쪽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였다. 특히 나가자네의 개인적 상황과 그 일족의 당시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면, 나가자네는 전자보다 후자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나가자네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원에게 상서를 올려 항의하려고 했던 사실은 간자키 장원측의 다자이후 개입 거부 조치가 원의 가정(家政)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암시한다.

『장추기』 조쇼 2년 8월 13일 기사는 원이 간자키 장원을 거점으로 삼아 권문(權門)과 유사한 입장에서 대외무역에 참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의 유일한 사료이다. 서술자 모로토키의 관점에서 한 발 벗어나 다른 등장인물인 원근신 다이라노 다다모리와 원근신 후지와라노 나가자네의 입장을 각각 분석하게 되면, 원이 참여하는 대외무역의 가능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간자키 장원의 이 사건은 원정기에 가속된 중앙·지방의 정치적 구조 변화의 산물이었다. 고대의 관리무역체제는 11세기부터 변질되기 시작해 12세기가 되면 소멸을 맞이한다. 이에 따라 무역관리의 중추였던 다자이후에도 변화가 생겨 다자이후 내부와 그 관할 영역에서 대규모의 세력 재편이 이루어졌고, 한편에서 권문무역(權門貿

易)의 기본 구조가 형성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원 또한 13세기 이후 대외무역의 주역이 된 대사사권문(大寺社權門)처럼 가산기구(家産機構)와 가사(家司)를 활용해 대외무역에 참여했다. 간자키 장원이라는 거점을 통해 이루어진 원의 대외무역은 원 권력의 공사혼효(公私混淆)적인 성격을 분석하는 또 하나의 사례를 제공한다.

주요어 : 원정(院政), 원근신(院近臣), 다자이후(大宰府), 대외무역(對外貿易), 간자키 장원(神崎庄), 헤이시(平氏)
학 번 : 2018-21562

목　　차

국문초록

머리말 ····· 1

제 1 장 12세기 초의 다자이후 관리무역체제 ···· 9
제 1 절 다자이후 관리무역체제의 쇠퇴 ····· 9
제 2 절 12세기 초 다자이후 관내의 정세 불안 ····· 20

제 2 장 원근신과 원의 대외무역 ····· 29
제 1 절 시라카와 · 도바 원의 해상 세력 육성과 다이라노 다다모리 ····· 29
제 2 절 원근신 후지와라노 나가자네의 입장 ····· 41

맺음말 ····· 52
참고문헌 ····· 56
日文要旨 ····· 60

그 림 목 차

[그림 1] 다자이후 부근 약도 ····· 9

머리말

조쇼(長承) 2년(1133) 8월 13일 다자이후(大宰府) 장관인 후지와라노 나가자네(藤原長實)는 중요하게 상의할 일이 있다며 미나모토노 모로토키(源師時)를 불러, 간자키 장원(神崎庄)과 관련한 한 사건을 전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모로토키는 이날의 일을 자신의 일기인 『장추기(長秋記)』에 기록하고 자기 의견도 말미에 덧붙였다.

> 조쇼(長承) 2년 8월 13일 을미일, 기상의 맑고 흐림이 일정하지 않았다. 이른 아침 소치 중납언(帥中納言, 후지와라노 나가자네)가 서장을 보내와 말하길, 중요하게 보여드리고 논의해야 할 일이 생겨 와줬으면 하니 가마(輦車)를 보내겠다고 했다. 따라서 오시(午時) 정도에 찾아갔다. 그는 말했다. "규슈(鎭西)에 당인(唐人)의 배가 도착하자 다자이후의 관인이 전례대로 존문(存問)을 했고 그에 따라서 화시물(和市物)을 (배에서) 내놓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후 (간자키 장원의 영주인) 비젠노카미(備前守) 다이라노 다다모리 아손(平忠盛朝臣)이 직접 구다시부미(下文)를 작성하여 (도바 원의) 원선(院宣)이라고 주장하면서, 송나라 사람 주신(周新)의 배는 간자키 장원의 관할(神崎御庄領)이므로 다자이후(問官)를 거쳐서는 안 된다고 지시(下知)한 바였습니다. 이 일은 지극히 면목이 없어 (도바) 원에게 고하러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상서(上書)의 안문(案文)을 써 주십시오. (저는 병으로) 붓을 들 수가 없어 (정서하지 않고) 그저 가나 문장으로 썼습니다." 따라서 (내가) 서장의 안문을 써 주었다. …… 애초에 송나라 사람이 도착했을 때는 다자이후의 관인이 존문을 하고 신속하게 상주를 거쳐서 안치(安堵)·회각(廻却)은 선지(宣旨)에 따르는 바이다. 그런데 장령(庄領)으로 하라고 분부를 내리셨다고 하니 언어도단이다. 일본의 폐망(弊亡)

* 이 논문은 2020년 포니정재단 인문연구장학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은 논할 것도 없고 외조의 치욕을 되돌아봐도 이는 잘못이다. (원의) 근신(近臣)이 원숭이나 개처럼 구는 일이다.[1)]

조쇼 2년 간자키 장원의 영주(預所) 다이라노 다다모리는 규슈(九州, 鎭西)에 도착한 송 상인 주신(周新)의 무역선이 간자키 장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상황(鳥羽院)의 원선을 근거로, 주신의 배가 서해도(西海道) 9국 2도(九國二島)를 관할하는 상급 행정기관이자 조정이 설치한 외교·무역기구인 다자이후(大宰府)를 경유하는 것을 거부했다. 10세기 중반에 완성된 관리무역체제의 규정에 따르면, 일본에 도착한 무역선은 다자이후의 검령을 거친 후 조정의 명령에 따라 관사(官司)에 필요한 무역품을 조정에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송나라 사람 주신의 배는 간자키 장원의 관할이므로 다자이후를 거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다다모리의 주장은 국가 권력이 정한 무역관리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다.

이 사료는 일본 무역사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12세기는 교토(京都)의 조정이 다자이후를 통해 무역을 독점하던 고대의 관리무역체제가 끝을 맞이하고, 느슨한 통제 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무역이

---

1) 『長秋記』 조쇼(長承) 2년 8월 13일조, "乙未, 晴陰不定也. 早朝帥中納言送書云, 大切可示合事出來, 可來向. 輦車可下也. 者, 仍午時許行向. 云, 鎭西唐人船來着. 府官等任例存問, 隨出和市物畢. 其後備前守忠盛朝臣自成下文, 號院宣, 宋人周新船, 爲神崎御庄領, 不可經問官之由, 所下知也. 此事極無面目, 欲訟申院也. 其上書案可書給. 不可振筆, 唯和名書ニ天可作候也. 者, 仍書々案. (중략) 抑宋人來着時, 府官存問, 早經上奏, 安堵廻却, 所從宣旨也. 而可爲庄領之由, 被仰下條, 言語道斷也. 日本弊亡不足論, 外朝恥辱更顧. 是非也, 近臣如猨犬所爲也." 石井正敏는 東京大學史料編纂所에 소장된 東山御文庫本(藤原定家書寫) 寫眞帳(架号6173/273)에 의거해 東京大學史料編纂所 소장 內閣文庫本 寫眞帳 2종(架号6173/267·268) 및 사본(架号4373/25) 등을 참조해 교감·표점했다. 사료 인용은 이에 따랐다. 石井正敏, 「肥前國神埼莊と日宋貿易ー『長秋記』長承二年八月十三日條をめぐってー」, 『石井正敏著作集 3 高麗·宋元と日本』, 勉誠出版, 2017. (초출 皆川完一編, 『古代中世史料學硏究』下, 吉川弘文館, 1998.) 중략된 부분은 나가자네가 모로토키에게 딸의 결혼 등 집안일을 상의하는 내용이다. '鎭西', '隨出和市物畢', '神崎御庄領', '經問官' 등 해석이 나뉘는 어구들은 이시이 마사토시(石井正敏)의 견해를 따랐으며, 최대한 그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한국어로 번역했다. 한자를 병기하기 위한 것 외에 모든 괄호 안에 든 내용은 필자가 맥락의 이해를 위해 추가한 것이다.

등장해 이전 시기보다 더욱 활발한 무역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 과도기이자 변혁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구체적인 무역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장추기』 조쇼 2년 8월 13일의 기사는 12세기 전반 무역의 실상을 담고 있다. 특히 고대 관리무역체제의 핵심인 다자이후와 원래라면 다자이후의 통제 아래에 놓였어야 할 장원이 무역 권한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장면을 포착했기 때문에, 무역제도의 시대적 이행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료로서 이용되었다.

1950년대 이전 이 사건은 대체로 장원 영주 다이라노 다다모리(平忠盛)가 기존의 고대적 질서에 저항한 일탈적인 행위로 이해되었다. 한국 · 중국 · 일본의 사료를 망라해 송일(宋日) 무역의 고전적인 상을 정립한 모리 가쓰미(森克己)는 11세기에 국가의 무역관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되면서 가격 불이익을 강요받게 된 중국 상인들이 다자이후를 통해 조정과 무역하는 일을 기피하게 되어 다자이후를 배제하고 규슈(九州) 연안에 있는 장원 현지에서 직접 장원영주들과 무역을 했다는 '장원내 밀무역설(莊園內密貿易說)'을 주장했다.[2] 그는 간자키 장원을 12세기 '장원내 밀무역'의 현장으로 지목하여, 조쇼 2년의 사건이 간자키 장원의 영주였던 다이라노 다다모리(平忠盛)의 밀무역이었다고 결론지었다. 다다모리가 '직접 구다시부미를 작성하여 원선이라고 주장'했다고 한 미나모토노 모로토키의 서술을 그대로 수용하여 다다모리가 원선을 참칭(僭稱)했다고 보았으며, 규슈 서북부에 위치한 간자키 장원이 아리아케 해(有明海)에 접해 있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아리아케 해로 무역선이 입항했다는 결론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나온 해석이었다.

그 이후 고고학 발견과 문헌사료 재검토에 의해 다자이후의 외항(外港)인 하카타(博多)가 거의 유일한 무역 거래의 창구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오랫동안 통설의 자리를 차지했던 '장원내 밀무역설'이 부정되었다. 12세기 전반까지 관리무역체제가 유효했다고 하는 주장 속에서 『장추기』에 기록된 조쇼 2년의 사건은 간자키 장원의 영주인 다이라노 다다모리가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도바 원의 총애받는 근신(近臣)이었기 때

2) 森克己, 『新訂 日宋貿易の研究』, 國書刊行會, 1975, pp. 131-140. (초출 森克己, 『日宋貿易の研究』, 國立書院, 1948)

문에 발생한 특수한 사례였을 뿐이었고, 일반적인 장원영주가 다자이후의 무역관리에 대항할 수는 없었다고 여겨졌다.[3] 관리무역체제에 대한 평가는 크게 변화했지만, 조쇼 2년의 간자키 장원 사건이 다이라노 다다모리라는 개인의 예외성에서 비롯했다고 보는 관점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12세기에 들어서면 관리무역체제와 관련한 기록이 급감하고 위에 인용한 『장추기』 조쇼 2년의 기사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문헌사료에서 관리무역체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와타나베 마코토(渡邊誠)는 조쇼 2년 간자키 장원측의 무역권 주장을 고대의 관리무역체제가 종료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평가했다.[4] 이뿐 아니라 그는 간자키 장원이 다자이후의 개입을 배제하고 무역권을 주장한 일을 다다모리보다 상위의 존재인 도바 원으로까지 확장되는 사건으로 보았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원청(院廳)에 소와 말을 공급·사육하는 분과인 원 미마야(院御廐)는 일종의 유통조직의 기능도 수행하는 곳이었으며, 원 미마야의 유통망은 일본 열도 북단의 오슈(奥州) 지역부터 남쪽의 하카타 지역까지 뻗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5] 다이라노 다다모리는 원 미마야에서 중직을 맡아 원거리 교역상인으로 구성된 원 미마야 도네리(院御廐舍人)[6]를 지휘하고 있었다. 또 간자키 장원(神崎庄)은 9세기에 칙지전(勅旨田)으로 설정된 이래로 대대로 원(院)에게서 원으로 상속되어 내려온 유서 깊은 원령 장원(院領莊園)이었다. 이곳을 원 미마야의 책임자인 다다모리가 영주(預所)로서 지배(知行)하고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원이 원령 장원과 원 미마야 그리고 원근신인 다이라노 다다모리라는 가산기구를 활용해 무역에 참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

3) 山内晋次, 『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 吉川弘文館, 2003, pp. 136-140.
4) 渡邊誠, 『平安時代貿易管理制度史の研究』, 思文閣, 2012, pp. 260-266.
5) 渡邊誠, 「第九章 十二世紀の日宋貿易と山門·八幡·院御廐」, 『平安時代貿易管理制度史の研究』, 思文閣, 2012, pp. 275-311.
6) 고미 후미히코(五味文彦)는 12세기 중반에 '御廐舍人六郎先生光吉'이 '洛中富家'로서 마상역(馬上役)으로 선정돼 기온 사(祇園社)에서 거행한 신사(神事)의 경비를 부담했다는 기록을 들어, 원의 미마야 도네리(御廐舍人)가 원거리 교역을 통해 성장한 상인집단이었음을 밝혔다. 五味文彦, 『院政期社會の研究』, 山川出版社, 1984, p. 361.

간자키 장원은 고대 율령국가에 의한 일원적인 관리무역체제가 종료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 권력을 대신해 해상에게 보호를 제공하며 새로운 무역 거점으로 등장한 곳 중 하나였다.[7] 12세기는 고대의 관리무역이 끝을 맞이하고 권문무역(權門貿易)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과도기이다.[8] 그동안은 수동적인 소비자의 입장에만 머물러 있던 다양한 세력들이 무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했고, 그들과 송상의 무역 거래로부터 새로운 무역 관행이 발생했다. 전술한 조쇼 2년의 사건에서 간자키 장원 측은 막 도착한 무역선 하나를 특정해서 간자키 장원의 관할 하에 있는 배라고 주장했다. 에노모토 와타루(榎本涉)는 일본의 권문세가가 하카타에 체재하는 송 해상인 '하카타 강수(博多綱首)'에게 무역 자금을 제공하고 무역선이 일본에 다시 돌아오면 의뢰한 무역품을 받거나 무역 이익의 일부를 배분받는다는 무역선 운영 방식을 규명했다.[9] 간자키 장원 측이 무역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했다는 사실은 곧 그 무역선과 사전에 거래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며, 간자키 장원이 하카타에 출장소를 두고 하카타 강수를 통역사 겸 상업 안내인인 통사(通事)로 조직해 그 대가로 영지를 수여한 사실[10]을 봐도 '무역 거점'으로서의 기능

---

7) 榎本涉, 『選書日本中世史 4 僧侶と海商たちの東シナ海』, 講談社, 2010. p. 139. 이와시미즈 하치만 궁(石清水八幡宮) 말사 하코자키 하치만 궁(筥崎八幡宮), 연력사(延暦寺) 말사 대산사(大山寺), 원령 무나카타 신사(宗像神社), 도후쿠지(東福寺) 말사 조텐지(承天寺) 등 하카타 주변에 위치하여 거리상 해상과 접촉하기에 유리했던 사사(寺社) 또는 장원들도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8) 林文理, 「博多綱首の歴史的位置ー博多における權門貿易」, 『古代中世の社會と國家』, 淸文堂出版, 1998, pp. 583-587. 하야시 분리는 국가가 일원적인 무역 관리를 실시하던 '다자이후 홍려관의 시대'와 13세기 후반 규슈 지역이 혼란에 빠졌던 '몽고습래의 시대' 사이를 '하카타 강수'의 시대로 규정했으며, 이것이 고중세 이행기의 장원공령제(莊園公領制)에 대응하는 무역 형태라고 주장했다. 하카타에서의 권문무역은 하카타에 거주한 무역선의 선주 내지는 선장이었던 송 상인 즉 '하카타 강수'와 연력사(延暦寺) 승려 · 히에 지닌(日吉神人) · 하치만 지닌(八幡神人) 등의 교역 집단 사이의 연휴 · 분업 체제이다. 이 권문무역 체제를 통괄하는 것은 하카타 강수와 국내 교역집단 양쪽을 지닌(神人)이나 요리우도(寄人)로 조직한 중앙의 권문세가와 하카타 주변 사사 · 다자이후 부관층 등 현지 세력이었다.

9) 榎本涉,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九～十四世紀—』, 吉川弘文館, 2007, pp. 70-74.

10) 13세기 초 간자키 장원의 하카타 출장소의 관리자(留守)와 하카타 강수 수안(秀安)은 함께 다자이후의 사자와 하코자키 궁의 잡상(雜掌)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을 수행하던 곳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무역사를 구성해 온 사료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간자키 장원의 무역과 관련한 사료들도 온전히 보여주지 않으며 충분히 말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도 조쇼 2년의 무역권 갈등을 다루는 사료는 『장추기』 8월 13일조 한 건뿐인 데다 내용도 소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료의 중요성은 퇴색하지 않는다. 12세기 국가적 관리무역의 양상을 알려주는 몇 안 되는 사료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다자이후와 장원 사이의 직접적인 무역 갈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원령 장원이 무역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증거로서,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淸盛) 이전에 헤이시(平氏)가 무역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흔적으로서 유일무이한 사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사료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경(公卿)의 일기라는 고기록(古記錄) 자료는 기록된 사실의 발생 시점과 거의 동시에 작성되는 생생한 기록이지만,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작성자 개인의 관점을 통해 기록된 사실이다.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다양한 사료들과 교차하여 활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기'의 본질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장추기』 조쇼 2년 8월 13일 기사는 대체로 고대 관리무역체제의 변질과 종료라는 맥락 안에서만 해석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간자키 장원 측에서 다자이후를 배제하고자 했던 것을 곧바로 장원영주이자 원의 근신인 다이라노 다다모리의 일탈적인 이익추구 행동으로 수렴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다이라노 다다모리를 벗어나 그 배후에 있는 원으로까지 시야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의 의미가 더욱 큰 맥락 안에서 논의될 수 있게 되었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초점 자체는 여전히 대송무

하코자키 궁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石淸水文書』 桐箱2-13 石淸水八幡宮璽御筥事紙背 丙納文書目6 「第七 承元四年(1219)筥崎放生會延引事」 "一通 建保六年…" (『大宰府·太宰府天滿宮史料』 卷7)) 같은 해에 하코자키 궁의 루스(留守)가 하카타 강수 장광안(張光安)을 살해한 이후 간자키 장원의 장관들은 장광안이 소유하던 영지는 간자키 장원이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石淸水文書』 桐箱2-13 石淸水八幡宮璽御筥事紙背 丙納文書目6 「第七 承元四年(1219)筥崎放生會延引事」 "一通 承久元年…" (『大宰府·太宰府天滿宮史料』 卷7) '綱首秀安'과 '通事船頭光安'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역(對宋貿易)의 전성을 누린 기요모리의 아버지이자 원에게 봉사하여 중앙 정계에서 성공을 거둔 무사라는 다다모리 개인에 더 쏠려 있다.

그러나 다다모리 개인의 돌출적인 면모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12세기 초에 간자키 장원을 거점으로 원이 무역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이 사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다자이후와 다자이후가 관할하는 하카타 주변 지역의 정세, 원정기의 정치적 지형, 원 권력의 권문(權門)적인 면모 등 시라카와 · 도바 원정기(白河 · 鳥羽院政期) 역사상의 다양한 측면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 출발점은 '근신이 원숭이와 개처럼 하는 일'이라고 쓰며 다다모리를 사건의 주범이라고 지적한 서술자 미나모토노 모로토키의 관점과 당시 실상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작업이 될 것이다.

미나모토노 모로토키는 헤이안 시대의 중앙 귀족을 대표한다. 그가 사료에서 비난하고 있는 대상인 다이라노 다다모리는 새로운 정치 질서인 원정(院政) 속에서 원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성장함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의 지위 상승을 이루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곧잘 원 근신이라는 신흥 세력에 대한 구 기득권층의 불만이라는 구도를 통해 묘사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명료하지만 거대한 구도 속에 매몰되어 왔던 것이 후지와라노 나가자네(藤原長實)의 존재였다. 위에 언급한 선행연구들 속에서 나가자네는 언급되지 않는다. 그저 나가자네가 다다모리의 행동에 반발하고 있는, 고대 관리무역체제의 핵심인 다자이후의 장관이라는 점에서 모로토키와 같은 범주의 인물로 치부되어 온 듯하다. 그러나 후지와라노 나가자네는 미나모토노 모로토키와 관계가 깊은 중앙 귀족임과 동시에 다이라노 다다모리와 마찬가지로 아주 저명한 원의 근신이기도 했다. 그런 그를 모로토키와 같은 기득권 귀족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다. 이를 생각하면 기사에 드러나 있는 모로토키의 문제 의식과 최초로 이 사건을 '사건'으로 만든 나가자네의 문제 의식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장추기』 기사에는 직접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를 쥔 인물은 도바 원이다. 도바 원의 '원선'의 정체와 그 의미를 당시 원선의 정치적 역할, 도바 원정기 원정의 성격과 함께 논함으

로써 이 사건에 숨어 있는 도바 원의 의향을 지금까지보다 선명하게 부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원이 권문의 입장에서 대외무역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장추기』 조쇼 2년 8월 13일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입장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밝혀, 간자키 장원 사건을 둘러싸고 어떠한 세력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에 주목하여 이 사건의 모습을 다시 그려볼 것이다. 미나모토노 모로토키와 다이라노 다다모리라는 인물 사이의 신·구 대립은 고대의 관리무역체제의 붕괴, 기존 정치 질서와 원정이라는 새로운 질서 사이의 경합을 논하는 재료가 된다. 조쇼 2년 8월 13일의 이 사건은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시대적 전환기의 역사상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깊다. 이 의의를 잘 살려, 서술자인 모로토키의 주관적인 서술로부터 한 발 벗어나는 동시에 무역제도사적인 맥락에 파묻히지 않으면서 『장추기』 조쇼 2년 8월 13일 기사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제 1 장 12세기 초의 다자이후 관리무역체제

제 1 절 다자이후 관리무역체제의 쇠퇴

그림 1 다자이후 부근 약도

『장추기』 조쇼 2년 8월 13일 기사로부터 파악되는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자이후(大宰府)에서는 외항 하카타 항(博多津)에 도착한 송 상인 주신(周新)의 배를 대상으로 규정에 따라 관리무역의 절차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간자키 장원의 영주인 다이라노 다다모리(平忠盛)가 원(院)의 명령이라고 주장하며 간자키 장원의 관할인 주신의 무역선이 다자이후를 경유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이 교토에 있는 다자이후의 장관 후지와라노 나가자네(藤原長實)에게 전달되었고, 나가자네는 크게 반발하여 도바 원(鳥羽院)에게 글을 올려 항의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나가자네로부터 이 사태를 전해들은 미나모토노 모로토키(源師時)는 '언어도단', '일본의 폐망'·'외조의 치욕', '근신이 원숭이나 개처럼 하는 일'이라는 수위 높은 비난을 일기에 남겼다.

모로토키는 '선지'를 통해 무역의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관리무역제도상의 원칙을 소환하여 '근신' 다다모리를 비난했다. 이 사료의 서술 태도는 다이라노 다다모리의 행동이 갖는 파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자연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이라노 다다모리에 의한 간자키 장원의 무역권 주장이라는 전제가 성립했다. 점차 11세기 이후의 관리무역체제의 제도와 실상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간자키 장원측이 직접 계약을 맺은 상인으로부터 무역상품을 입수할 권리를 주장한 것 자체는 관행으로 인정되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데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여전히 장원측이 상인과 계약을 맺어 거래하는 일은 '다자이후의 존문·검령을 거친 후에 허가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무시하고 '다자이후의 간섭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것이 문제였다고 보거나,[11] 다다모리가 간자키 장원 즉 자본 출자자가 권리를 갖는 '잡물(雜物)'뿐만 아니라 다자이후가 관장하는 것이 원칙인 '해상(海商)이 처분의 권리를 갖는' '화시물(和市物)'을 포함한 '무역선 전체의 영장권을 주장해 다자이후의 관여를 배제'하고자 해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보는 등,[12] 다자이후의 관리무역은 기본 절차로서 유지되었음을 전제하고 다다모리의 주장의 어느 부분이 그와 충돌하고 있는지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장추기』 조쇼 2년 8월 13일의 기사를 통해 12세기 관리무역체제와 다이라노 다다모리의 충돌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거쳐야 할 작업이 있다. 바로 서술자의 의도와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12세기는 고대의 관리무역제도가 해체되는 시기였고, 고대 관리무역 규정에 대한 언급은 이 사료를 마지막으로 더는 현존 문헌사료에 등장하지 않는다. 다다모리가 기존의 관리무역체제 원칙을 어긴 것이 과연 모로토키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에도 '언어도단', '일본의 폐망', '외

11) 石井正敏, 「肥前國神埼莊と日宋貿易ー『長秋記』長承二年八月十三日條をめぐってー」, 『石井正敏著作集 3 高麗·宋元と日本』, 勉誠出版, 2017, pp. 48-49.
12) 渡邊誠, 『平安時代貿易管理制度史の研究』, 思文閣, 2012, pp. 261-263.

조의 치욕'이라고 칭해질 만한 일이었는가? 모로토키가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던 본질적인 이유가 과연 그것이었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자이후 관리무역체제가 12세기 초에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모로토키의 강도 높은 비난이 향하고 있는 대상이 명료해질 것이고, 그가 처해 있는 입장과 추구하는 가치가 드러날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사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모로토키의 관점을 상대화함으로써 이 사료가 의미하는 바를 더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12세기 초 관리무역체제의 위상이라는, 기록 바깥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12세기에는 고대에 형성된 관리무역체제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이 독점적으로 상인과 교역하는 비중은 줄어들었고, 여러 중앙 권문(權門)이 규슈 현지에 직접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13세기 이후의 동중국해 무역의 특징인 느슨한 국가의 통제와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교역이 등장했다.[13]

그러나 헤이안 시대의 관리무역체제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모든 무역은 국가의 통제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관이 무역하기 이전에 민간에서 사적으로 외국 상인과 교역하는 일은 율령으로 금지되어 있었고,[14] 다자이후가 조정을 대신해 무역을 전담하는 무역 관리기구의 역할을 했다. 늦어도 9세기 전반에는 다자이후가 관사(官司)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선매하는 절차가 정립되어 있었다. 다자이후는 해상이 도착

13) 하네다 마사시 엮음, 고지마 쓰요시 감수, 조영헌 · 정순일 옮김, 『바다에서 본 역사ㅡ개방, 경합, 공생 동아시아 700년의 문명 교류사ㅡ』, 민음사, 2018, pp. 63-145. 「1부 열려 있는 바다」. 1250년에서 1350까지의 백 년은 '열려 있는 바다'의 시대로, ①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역의 교류가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와 인도양까지 확산되는 광역 교류로까지 연결되었으며, ② 민족적 · 종교적으로 다양한 '외래자'가 활발하게 왕래하며 각지에 커뮤니티를 형성해 현지 사회에 녹아들어 그 네트워크가 해역 교류의 기반을 형성했고, ③ 연안 각지에서 다양한 차원의 정치권력이 해상무역에 대해 비교적 온화하거나 유연한 관리 체제를 세웠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역을 적극적으로 보호 및 진흥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국가 간 긴장 관계가 동반되는 상황에서조차 무역 외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4) 『令義解』 關市令 第八 官司條 "凡官司未交易之前。不得私共諸蕃交易爲人糾獲者。二分其物一分賞糾人一分沒官。若官司於其所部捉獲者。皆沒官。"

하면 적재물을 검사하고 선매 대상 물품을 선정해 역제(驛制)를 이용해서 교토로 진상했다. 나머지 물품은 다자이후 관인(府官)의 감독하에 널리 민간에서 교역되었다.[15] 조정은 다자이후를 통해 누구보다 먼저 상인의 신병과 화물을 장악함으로써 무역품을 선매할 수 있었다.

9세기 말부터는 다자이후 부관(府官)이 아니라 중앙의 조정이 직접 파견하는 당물사(唐物使)가 선매를 진행했음이 확인된다.[16] 무역품 확보에 대한 조정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당물사는 무역 결제 수단이었던 사금의 출납 권한을 가진 구로도도코로(藏人所)의 구로도(藏人) 한 명과 출납(出納) 한 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다자이후로부터 상인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다자이후 현지로 파견되었다. 당물사의 임무는 상인이 가져온 화물을 심사해 관사 선매할 물품을 선정하고 가격 교섭을 한 후 구입한 물품을 교토로 운반해 오는 것이었다. 지불은 당물사가 귀경한 후 다시 구로도도코로의 고토네리(小舍人)가 반금사(返金使)의 명목을 띠고 다자이후로 내려가서 완료했다.[17]

그런데 10세기 말 사금의 주산지인 무쓰(陸奥) 즉 오슈(奥州)로부터 사금의 헌상이 정체되어 조정의 무역 결제금이 부족해지면서 당물사 파견에는 변화가 생겼다. 덴겐(天元) 5년(982) 3월에는 상인이 일본에 온 지 세 해가 지났는데도 무역 대가금(答金)를 받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체재비를 소진해 굶어 죽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조정은 오슈에서 금이 헌상되지 않아 답금을 줄 수 없었고, 오슈에 급히 사자를 보내 금을 올리라고 촉구할 뿐이었다.[18] 이런 사금 부족 상황을 배경으로 조호(長保) 2년(1000)에는 쌀과 비단 등 다자이후 관내의 관물(官物)[19]로 상인에게 교역 대가를 지불하라는 조정의 명령이 내려지기도

---

15) 『類聚三代格』 卷18 夷俘幷外蕃人事 天長 8년(831) 9월 7일 「応檢領新羅人交關物事」 "商人來着, 船上雜物一色已上, 簡定適用之物, 附驛進上, 不適之色, 府官檢察, 遍令交易."

16) 『平安遺文』 4539호 貞觀 5년(863) 정월 4일 「秦泰信書狀」, "今間從京中朝使來收置唐物." 최초의 당물사 파견 기록이다.

17) 『新儀式』 「大唐商客事」 (『群書類從』) "大唐商客事. 太宰府言上客着岸之由, 爲令撿頒貨幷行和市事, 差藏人一人, 出納一人下遣. 〈或不遣使付府官, 或被遣藏人所雜色等.〉 使等撿頒唐物參上, 厥後更遣出納一人, 令弁賜直, 令大政官奏."

18) 『小右記』 天元 5년(982) 3월 25일조, 天元 5년(982) 3월 26일조.

했다.[20]

최종적으로 당물사 파견이 정지된 것은 조와(長和) 원년(1012)이었다.[21] 가뭄 피해가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규슈로 다른 명목의 중앙 조정의 사자(官使)를 내려보냈기 때문에 사자가 지나는 국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22] 이때는 '다자이후에 맡겨서 적당한 물건을 보내게 하라(付府被召加可然物)'고 하여 조정에서 다자이후에 적당한 물건을 진상할 것을 위임했을 뿐 다른 지시가 내려간 흔적은 없다. 이는 곧 결제 권한과 지불 능력 또한 다자이후로 옮겨 갔다는 뜻이 된다. 다자이후에서는 내려오지 않는 사금 대신 관내에서 징수하는 쌀이나 포로 관무역 대금의 결제를 완료했던 것으로 보인다. 와타나베 마코토(渡邊誠)의 지적에 따르면 11세기 중반 이후는 금을 세는 단위인 량(兩) 대신 쌀의 단위인 석(石)과 직물의 단위인 필(疋)이 무역 대금 결제 단위로 사용되던 상황이었고, 여기에 덧붙여 빈랑(檳榔), 야광패(夜光貝) 등 남도(南島) 산품이 새롭게 다자이후의 관물로 징수되어 결제 대금이자 수출품으로서 사용되었다.[23] 10세기 말부터 다자이후 관인에 의한 관내 수탈이 심해진 것 역시 다자이후에 새로운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는 증거였다.[24] 만주(万壽) 5년(1028)에 송 상인이 조정의 고관에게 선물을 보내며 '조속히 칙사를 내려보내 화물을 검령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

---

19) 원래 율령법 용어로서의 관물은 국가에 저장되어 있는 정세나 조용물을 말한다. 국청 · 국분사 등 국아 관련 시설 등 국가가 소유하는 물건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10세기 이후 세제가 변화하면서 율령세목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일괄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하자, '관물'이라는 말이 토지 면적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된다. 원래 사료상에서는 똑같이 '관물'이라고 칭하면서도 서로 다른 두 가지 용법이 병용된다. 中込律子, 『平安時代の税財政構造と受領』, 校倉書房, 2013, p. 85, p. 157.

20) 『權記』 長保 2년(1000) 7월 13일조.

21) 10세기 초에도 일시적으로 당물사의 파견이 정지된 적이 있었지만 이때는 '진상해야 할 물건의 품목(可進上物色目)'을 지시하는 구로도도코로 첩(藏人所牒)이 다자이후에 보내졌으므로 선매 대상물 심사 권한이 온전히 다자이후로 넘어온 것은 아니었다. (『扶桑略記』 延喜 9년(909) 윤8월 9일조. "令抑, 唐人貨物, 年來遣使令檢進. 此度停遣使, 令大宰府檢進之. 又給藏人所牒, 令仰可進上物色目大宰府.")

22) 『御堂關白記』 長和 원년(1012) 9월 22일조.

23) 渡邊誠, 『平安時代貿易管理制度史の研究』, 思文閣, 2012, p. 179.

24) 渡邊誠, 『平安時代貿易管理制度史の研究』, 思文閣, 2012, pp. 188-189.

을 마지막으로, 더는 당물사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25]

당물사가 파견되고 있던 때도 원궁왕신가(院宮王臣家)의 사자들 및 다자이후 관내(管內) 부호들은 중앙에서 사자가 내려오기까지의 시간적 지체를 활용해 다자이후 관인이나 당물사가 관사 선매 절차를 시작하기 이전에 사적으로 상인과 교역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금령이 여러 번 내려졌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26] 금령의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 조정은 모든 민간무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의 사자가 도착해서 선매를 끝낸 이후라면 거래를 해도 좋다고 허가하고 있다. 관리무역체제 속에서 조정이 관사 선매를 실시한 목적은 모든 무역품을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야마우치 신지(山內晋次)가 강조한 대로 '왕조국가'가 관리무역을 실시한 것은 율령체제 해체라는 혼란상 속에서 조정이 확고부동한 왕권으로서의 권위를 과시하고 확인받으려는 것이 더 본질적인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27]

연기제(年紀制) 제정의 목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연기제는 엔기(延喜) 11년(911) 제정된 상인 내항 빈도 제한 규정이다.[28] 조정에서는 연기제 규정을 지켜서 내항한 상인을 홍려관(鴻臚館)이라는 다자이후의 객관에 '안치(安置)'하고, 전번의 방문으로부터 아직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내항한 경우에는 국가와의 교역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항해 조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회각(廻却)' 조치를 내렸다. 한번 정식으로 입국을 인정받으면 일본에서 머무르는 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제재가 없었던 듯하다. 덴겐(天元) 3년(982)의 상인은 삼 년이 넘게 일본에 체재했고,[29] 상인 증령문(曾令文)은 조토쿠(長德) 4년(998)에서 간코(寬弘) 원년(1004)까지 여섯 해 동안 일본에 머물

25) 『小右記』 長元 2년(1029) 3월 2일조. 실제로 당물사가 파견되지는 않았다.
26) 『日本三代實錄』 仁和 원년(885) 10월 20일조. "先是, 大唐商賈人着大宰府. 是日, 下知府司, 禁王臣家使及管內吏民私以貴直競買他物.", 『類聚三代格』 延喜 3년(903) 8월 1일 「太政官符」 "応禁遏諸使越關私買唐物事. 唐人商船來着之時, 諸院諸宮諸王臣家等, 官使未到之前遣使爭買. 又墉內富豪之輩心愛遠物, 踊直貿易. 曰茲貨物價直定准不平. 是則關司不慥勘過, 府使簡略撿察之所致也."
27) 山內晋次, 『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 吉川弘文館, 2003, pp. 186-188.
28) 『貞信公記抄』 天慶 8년(945) 7월 29일조.
29) 『小右記』 天元 5년(982) 3월 25일조.

렀다.[30]

애초에 헤이안 시대의 관리무역체제 안에서 상인의 장기 체재는 필연적이었다. 조정에서 안치·회각이 결정되어 다자이후로 전달되기까지는 최대 수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 설령 회각이 명령되었다고 해도 상인이 곧바로 출국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간코 2년(1005) 증령문의 재입국에 따른 안치·회각을 논의하는 조정 회의(陣定)에서 회각 판정을 내릴 것이라면 조속하게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발표되었는데, '송인이 만일 순풍을 기다려 돌아가겠다고 말하면 그에 따라 또한 허가가 있을 것이므로, 명목은 추각(追却)이라고 해도 자연히 한두 해가 지나 안치와 다름없다'는 상황이 왕왕 벌어졌기 때문이었다.[31] 송으로부터의 무역선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남풍을 타고 일본에 오며, 겨울이 끝난 3-4월경에 북풍을 타고 송으로 돌아갔다. 홍려관이 황폐화됨과 함께 조정에서 지급하는 체재비(供給)가 감액되고 결국 지급 자체가 정지되는 경향 속에서, 상인은 긴 체류기간 동안의 경비를 자급해야 했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 때문에 조정은 상인에게 경비 자급을 위한 약간의 상거래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조지(長治) 2년(1105) 8월에 작성된 다자이후의 입국 사유 심문 조서인 존문기(存問記)에서 송 상인 이충(李充)이 언급하고 있는 '수신화물(隨身貨物)'이 바로 자급을 위한 교역품에 해당한다.[32] 이충은 '수신화물 아주 조금'은 교역하여 고향에 돌아가는데 보탬으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중국 본향(本鄕)의 출국 허가서인 공빙(公憑)에도 기록하지 않았던 데다, 조악한 물건이라 관에 올리는 용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신화물을 제출하라는 다자이후 부사(大宰府使)의 요구를 거절했다.[33] 즉 수신화물은 '화물 게부미(貨物解文)'·'화

30) 『權記』 長德 4년(998) 7월 13일조.
31) 『小右記』 寬弘 2년(1005) 8월 21일조.
32) 『朝野群載』 卷20 異國 長治 2년(1105) 8월 22일 「存問記」.
33) 渡邊誠, 『平安時代貿易管理制度史の硏究』, 思文閣, 2012, pp. 262-263. 물론 내착 이후 조정에서 安置廻却 결정이 내려오는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수 개월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체재비 마련을 위해 필요한 양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宰府使가 재차 질문하였으며 그것을 存問記에 그대로 남기고 있는 것을 보아, 체재 비용임을 감안하고도 많은 양이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시물 게부미(和市物解文)' 등 통상적으로 관에 제출하는 화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선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이었으므로, 이것에 한하여 상인은 안치 · 회각 결정과 무관하게 민간과 교역할 수 있었다.[34]

또 거주지에 엄격한 제한이 없었다. 다자이후의 외국인 객관(客館)이었던 홍려관(鴻臚館)이 11세기 중반에 황폐화되며 하카타 항(博多津) 부근으로 중국 상인의 집단 거주지 '당방(唐房)'이 발달했다. 이 '당방'은 12세기 전반에는 하카타 해변(博多浜) 서쪽의 레이제이 항(冷泉津) 부근에 형성되었고, 12세기 후반에는 점차 동쪽의 일본인 거주 구역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원래는 중국 상인들의 묘지였던 하카타 해변 동쪽 가장자리도 중국 상인이 영유하는 땅이 되었다.[35] 12세기 이후로는 하카타 당방이 아닌 서해도(西海道)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상인들도 확인되므로, 다자이후 관내의 지역이라면 어디든 거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이익으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사원 소속으로 역을 지면서 그 대가로 토지를 급부받기도 했다.[36]

원래 연기제는 조정이 재정 긴축을 목적으로 무역 지출을 줄이기 위해 즉 상인과의 거래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이해되었다. 하지만 연기제는 위에서 보았듯 상인의 체재 장소 및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재비 자급을 위한 민간교역이 묵인되는 등 실질적인 상

---

34) 잡물도 원칙적으로는 조정으로부터 안치 · 회각을 기다리는 동안 다자이후의 창고에 압류되어야 했다. 9세기 중반 무역선 내항 후 관의 창고에 넣은 물건은 무역 절차가 완료되고 그 창고가 다시 열리기 전까지 개인적인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낼 수 없었다. 『高野雜筆集』 「徐公祐가 義空에게 보낸 서장」 ①唐 大中6(852)-6-30 "家兄亦有狀及信物, 候官中開庫附往. 謹空", ②唐 大中6(852)-10-21 "別無異物堪獻, 錢香毬兩箇 · 幡子兩箇, 充供養, 家兄書中有綾一疋, 被官中收市出不得, 今將百和香十兩, 充代後處, 伏望照察. 謹空." (연도비정은 다음 논문에 따랐다. 田中史生, 「唐人の對日交易ー『高野雜筆集』下卷所收「唐人書簡」の分析からー」, 『経濟糸』(229), 11-23, 2006, pp. 14-18.) 따라서 관무역 후의 변제를 전제로 돈을 빌리는 등의 금융거래도 발생했을 것이다. 『參天台五台山記』 延久 4년 4월 18일 成尋은 북송에 도착했을 때, 자기 짐이 추해를 위해 시박사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사용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관세 납부 및 관무역 완료 후의 변제를 전제로 하여 돈을 빌렸다. 中村翼, 「平安中期における貿易管理体制の変容」, 『待兼山論叢 文化動態論篇』(49), 1-25, 2015, pp. 9-10.

35) 大庭康時, 「博多綱首の時代」, 『歷史學硏究』(756), 2-11, 74, 2001, pp. 3-5.

36) 林文理, 「博多綱首の歷史的位置ー博多における權門貿易」, 『古代中世の社會と國家』, 淸文堂出版, 1998, pp. 581-582.

거래 억제책으로서 기능하지 않았다. 에노모토 와타루(榎本涉)는 상인이 내항 빈도의 제한을 극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재량을 늘리게 되면서 조정과의 거래량 자체가 늘어났을 가능성을 지적했다.[37] 따라서 상인의 내항 빈도를 억제하여 조정의 지출을 억제한다는 연기제의 취지가 실효를 발휘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1세기 초부터 조정 회의에서 안치·회각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 '내착 사다메(內着定)' 또한 연기제 원칙이 동요했다는 증거였다. 연기제가 안치·회각이 연기라는 특정한 시간적 기준에 근거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에서 조정 자문회의에서 공경의 논의를 통해 유연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변화했다. 또 11세기 중반 이후로는 연기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조정의 기조 자체가 회각으로 기울어 가는 경향이 보인다. 11세기 중반에는 이전보다 현저하게 많은 수의 상인이 일본을 방문했지만, 조정과 직접 교역을 한 경우는 손에 꼽는다.[38]

1115년 금(金) 건국 이후 휘몰아친 국제 정세 불안정이 외적 조건으로 작용하여, 11세기 중반 송의 시박제도(市舶制度) 정비 이후 활황을 보이던 무역 풍조가 잠시 침체되었다. 하지만 1127년 남송 건국 후 상황이 안정되어 교역이 재개되고 승려와 상인이 대륙과 열도를 활발하게 왕래할 때에도 중앙 조정이 주도하는 다자이후 관리무역은 복구되지 않았다. 또 내외의 전란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수립된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 초기에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경계가 더 높았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는 자신의 유력 고케닌(御家人) 아마노 도오카게(天野遠景)를 진서봉행(鎭西奉行)으로 임명해 진서 즉 규슈의 지배를 안정시키려 했다. 그런 상황에도 다자이후 관리무역은 복구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역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북쪽으로는 오우(奥羽)의 히라이즈미(平泉)로부터 서쪽으로는 단노우라(壇ノ浦)까지 거의 일본 전 영역을 무대로 벌어진 겐페이 쟁란(源平爭亂)으로 궁궐과 저택, 사사(寺社)의 피해가 막심했고 그곳에

37) 榎本涉, 「書評 渡邊誠著 『平安時代貿易制度史の研究』」, 『社會經濟史學』 79(3), 439-441, 2013, p. 440.
38) 山內晋次, 『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 吉川弘文館, 2003, pp. 142-147.

소장 · 장식되어 있던 '당물(唐物)'의 소실 또한 심각했다.[39] 11세기 초에는 궁궐 화재로 인해 부족해진 당물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연기 제한을 위반하여 원래대로라면 회각되었어야 할 상인을 원칙을 깨고 안치했었다.[40] 그러나 전후 수복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던 시대였음에도 관리무역은 재개되지 않았다.

와타나베 마코토(渡邊誠)는 이 원인을 중앙 조정이 간접적으로 당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행정적 비용을 들여 직접무역 즉 관사 선매를 재강화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고 보았다.[41] 즉 다자이후 관리무역은 내외의 상황 때문에 잠시 휴지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12세기에 무역 구조의 본질적인 변화로 인해 효용이 다하여 폐지되었던 것이라고 봐야 한다.

12세기 초 관리무역체제는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었다.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료는 11세기 말경이 되면 '근대의 다자이후 관인(府司)은 회각 관부를 보면서도 특히 이객(異客)을 우대하고 정(情)에 맡겨 그 뜻을 헤아린다'고 하며 '명령이 나와도 행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쓴 오토쿠(応德) 2년(1085) 10월 29일부 「다자이후 언상장(大宰府言上狀)」이었다.[42] 조정에서 회각 명령을 내려도 다자이후의 관인들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그들과 교역을 행하는 일이 적지 않았음을 조정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연기를 위반한 상인이 계속 찾아오게 된 것도, 조정으로부터 안치 명령을 받지 못해도 사실상의 안치 상태에 있으면서 체재하는 동안 다자이후 관내에서 민간 거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1세기 중반 이후 관리무역체제는 조정의 의지가 다자이후 현지에 유의미하게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를 고려하면 12세기 초는 이미 모로토키가 내세운 '선지를 통해 무역의 가부를 결정한다는 원칙' 자체는 이미 절대적인 권위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다자이후 관리무역체제가 형식적인 절차로서 유지되고 있었

39) 『吾妻鏡』 文治 5년(1189) 8월 22일조.
40) 『小右記』 寛弘 2년(1005) 8월 21일조.
41) 渡邊誠, 『平安時代貿易管理制度史の研究』, 思文閣, 2012, p. 274.
42) 『朝野群載』 卷5 朝儀下 応德 2년(1085) 10월 29일 「大宰府言上狀」.

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이미 원칙의 위반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원칙을 소환하여 다다모리를 비판한 모로토키의 의도를 전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모로토키는 '근신이 원숭이나 개처럼 구는 일'이라며 다이라노 다다모리의 행위 자체를 비난했다. 이로부터 다이라노 다다모리의 '파격적인' 행동이 원의 근신이라는 지위를 믿고 자행된 일이라는 상황인식이 읽힌다. 이 문장 때문에 간자키 장원측의 무역권 주장이 다다모리의 의지에 의한 일이라는 이해가 비롯되었다. 그 이해가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로 개연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이 곧 모로토키의 의도와 목적을 밝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제 2 절 12세기 초 다자이후 관내의 정세 불안

간자키 장원(神崎庄)의 영주 다이라노 다다모리(平忠盛)가 당시 명목적으로나마 존재했던 선지를 통해 무역의 가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암암리에도 아니고 '원선(院宣)'까지 표방하며 공공연하게 위반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장추기』 기사의 내용을 따르자면, 그 이유는 송나라 사람 주신(周新)의 무역선이 '간자키 어장령(神崎御庄領)' 즉 간자키 장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이었다. 12세기는 국가적 무역 관리의 변질로 인해 관사 선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어차피 조정에서 회각(廻却) 판정을 내리게 될 것이므로 민간교역이 허가될 때까지 기다리면 자연히 '간자키어장령'인 무역품은 선매 계약에 의해 간자키 장원이 확보하게 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회각 판정이 내려오기 전에 간자키 장원 측이 다자이후로부터 송 상인 주신이 싣고 온 무역품의 관리권을 가져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조쇼 원년(1132) 7월 28일 진노사다메(陣定) 즉 조정에서의 공경 회의에 나가토노카미(長門守)가 '송객이 도착한 일(宋客來着事)'를 언상했다.[43] 이 내용에 따르면 송객(宋客) 즉 송 상인은 화물을 싣고 다자이후에 도착한 후 살해당했으며 그들의 숙소인 당방(唐坊)이 불탔다. 와타나베 마코토(渡邊誠)는 다자이후에서 일어난 사건을 나가토노카미가 보고하고 있으므로, 사건에서 살아남은 송인들이 나가토 국(長門國)까지 도망가 그곳에서 신고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44] '요즘 다이니(大貳, 장관)·

43) 『中右記』 長承 원년(1132) 7월 28일조. 이 사료는 『史料大成』에는 결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잘 이용되지 않았으나, 渡邊誠가 宮內廳 書陵部 소장 九條家本 『中右記部類』(鎌倉期 사본)에서 발견하고 중요한 사료로서 부각했다. "有陣定、右大臣被行也、依催申時許參內□、民ß卿〔忠〕、源大納言〔師〕、新大納言〔實〕、左衛督(兵脫ヵ)〔宗〕、皇□□(后宮)權大夫〔師〕、中宮權大夫〔忠〕、新源中納言〔雅〕、左宰相中將〔宗〕、左大弁〔實光〕、右宰相中將〔成〕、右府被遲參間、予奉行、(중략) 右大臣被參被下文書、披見之處、長門守言上宋客來着事、件宋客來持貨物來着太(大)宰府之間、爲人被殺害、被燒唐坊事、人々雖不同予定申云、被問大貳卿、慥遣官使、可被沙汰旨、委同左大弁定申、"

44) 渡邊誠, 『平安時代貿易管理制度史の研究』, 思文閣, 2012, p. 315.

쇼니(少貳, 차관)·지쿠젠노카미(筑前守)가 모두 재경(在京)하기 때문에, 다자이후의 안에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되었던 조쇼 원년(1133) 12월 29일은 이 사건으로부터 반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45] 조쇼 원년 9월에는 무나카타 사(宗像社)의 중도(衆徒)와 사사(社司)가 전투를 벌이는 중에 무나카타 사가 전소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신체(御體)·신보(神寶)·일체경(一切經)이 모두 불타 사라졌다.[46] 이와 같은 하카타 주변의 불안 상황은 무역품의 안전한 입수와 운송에는 큰 위협 요소였다. 자칫하면 물건 자체가 소실될 수도 있었음은 물론, 상인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자이후가 관내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조쇼 연간(1132-1135)의 임시적인 국면이 아니었다. 12세기 초부터 계속되었으며 이후 몇십 년간 이어지게 될 장기적인 추세였다.[47] 가쇼(嘉承) 3년(1108) 3월 5일에 열린 진노사다메에 다자이후가 올린 언상장(言上狀)에는 '신민(神民)이 봉기하고 군도(群盜)가 상란(相亂)하여 관내에 방화와 살해가 셀 수 없을 정도'라는 상황이 보고되었다.[48]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중반까지 다자이후 관내는 정치적 혼란 상태였다.

그 원인을 설명하려면 11세기의 다자이후 기구 운영 방식의 재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섭관정치(攝關政治) 시대에 공적 기구 다자이후의 운영은 개인으로서의 다자이후 장관의 가정(家政) 기관인 부 만도코로(府政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마사키 기사부로(正木喜三郎)는 이 시기에 다자이후 기구 내부의 부관층이 두 갈래로 즉 장관과 결합해 만도코로의 기능을 독점한 세력(監·監代)과, 장관과 괴리되어 다자이후 운

45) 『中右記』 長承 원년(1133) 12월 29일조.
46) 『中右記』 長承 원년(1133) 12월 29일조.
47) 호엔(保延) 6년(1140) 5월 5일에는 규슈 곳곳의 대중(大衆)·지닌(神人)이 다자이후 이하 건물(屋舍) 수십 가를 불태웠다. 주범은 대산사, 가시이 궁, 하코자키 궁이었다. (『百練抄』 保延 6년(1140) 6월 20일조.) 닌표(仁平) 원년(1151)에는 다자이후가 하코자키 궁·하카타를 대상으로 대추포를 행하여 송인 왕승의 후가 이하 1600가의 사재잡물을 빼앗았다. (『宮寺緣事抄』 「筥崎造宮事」 文治 2년(1186) 8월 15일 「中原師尙勘狀」 (大日本古文書 家わけ四ノ五)) 십 년 간격의 두 사건은 모두 다자이후 주변 사사와 다자이후의 무역권 충돌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48) 『中右記』 嘉承 3년(1108) 3월 5일조.

영에서 배제되어 가는 세력(權監 · 典 · 權典 · 典代)으로 분열되었다고 보았다.[49] 11세기 말이 되면 다자이후 운영의 중심은 부 장관과 결합한 유력 府官과 그 일족, 부 장관이 임명한 감대(監代) 그리고 그들이 포진해 있는 장관의 사적 가정기관인 부 만도코로(府政所)가 차지했다. 이 다자이후 장관에 의해 사유화된 다자이후는 점차 국아 지배와 대립하면서 다자이후 관내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해 갔다.

대립의 원인은 율령제적 행정기구가 변질되면서 심화된 재정난이었다. 다자이후 장관은 스스로를 수령국사(受領國司)라고 자임하게 되었고, 관내 국들에 자의적으로 임시잡역(臨時雜役)을 부과했다.[50] 이외에도 국아(國衙)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재지 영주와 손을 잡아 그들의 영지를 부령(府領)으로서 집적하는 등, 다자이후가 관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가는 과정에서 국아 지배는 축소되어 갔다. 이 결과 다자이후 장관은 부 기구를 장악하여 부령의 처분권을 포함한 무역과 징세, 토지 소유권 소송 재결 등 다자이후의 모든 권한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의적인 기구 운영, 부관의 불법적인 영유권 침해 행위(押妨)가 바로 '신민이 봉기하고 군도가 상란하여 관내에 방화와 살해가 셀 수 없을 정도'였던 상황의 기본 전제였다.

11세기에는 다자이후의 보호와 통제 아래에서 성장해 오던 관내 대사사(大寺社)들이 다자이후의 지배로부터 이탈해 무력을 갖춘 장원영주로 변화해 갔으며,[51] 12세기 초반이 되면 다자이후의 국아 통솔력이 명백하

---

49) 正木喜三郎, 「大宰府領形成の歷史的背景—大宰府の変質と莊園 · 公領制—」, 『東海大學紀要 文學部』(52), 27-68, 1990, pp. 54-58.

50) 『平安遺文』 439호 寬弘 2년(1005) 4월 14일 「條書定文寫」.

51) 正木喜三郎, 「大宰府領形成の歷史的背景—大宰府の変質と莊園 · 公領制—」, 『東海大學紀要 文學部』(52), 27-68, 1990, pp. 51-52. 안락사(安樂寺)와 관세음사(觀世音寺)가 대표적이다. 관세음사에는 원래 다자이후 부관이 별당을 겸하는 '속별당(俗別當)'이 존재했으나, 간닌(寬仁) 5년(1021) 3월 22일의 관세음사첩(觀世音寺牒)에 권소감(權少監) 오오쿠라 아손(大藏朝臣)이 서판한 것을 끝으로 더이상 등장하지 않게 된다. 이 시기는 관세음사 소속 봉호전(封戶田)에 국아의 검전사(檢田使)가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 관세음사령의 장원화를 완성했던 때였다. 또 안락사는 1036년 다자이 곤노소치(權帥) 후지와라노 사네나리(藤原實成)의 낭당(郞党) 덴야쿠노조(典藥允) 미나모토노 유키치카(源致親)가 안락사의 물품을 압수하자, 이에 맞서 안락사 지닌(神人)이 '투란(鬪亂)'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안락사는 이 사건을 조정에 제소했고 그 결과 곤노소치 사네나리가 파면되었다. 안락

게 약화되었다. 고와(康和) 4년(1102) 강한 태풍으로 관세음사의 가람이 큰 피해를 입었다. 가쇼(嘉承) 원년(1106) 5월 25일 다자이후는 조정의 지시를 받아 관내 제국의 신사(神社)·불사(佛寺)·권문세가에 각각이 평균하여 관세음사의 가람을 재건하라고 명령했지만 각 국(諸國)은 그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52] 고와 3년(1107) 7월 3일에는 다자이후의 관할하에 속하는 쓰시마의 국사(對馬守) 미나모토노 요시치카(源義親)가 규슈 지역을 약탈하며 다자이후의 명령을 무시했다.[53] 에이큐(永久) 2년(1114) 5월 미륵사(弥勒寺) 강사(講師)의 대리인(目代)이 미륵사 소속의 인력인 지닌(神人) 오륙백 명을 이끌고 와서 부젠노카미(豊前守) 정직(正職)을[54] 폭행하고 부젠 국의 인감을 탈취했다. 부젠노카미는 상급기관인 다자이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교토로 올라가 조정에 보고했다. 당시 관인의 월소(越訴)는 처벌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으로 직소(直訴)한 것은 이동 경로 등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자이후의 관내 장악력 약화가 그 배경에 있었기 때문이었다.[55]

다자이후 장관 및 부 만도코로 권한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세기 초에 다자이후가 관내 혼란을 진정시키지 못한 데는 다자이후 장관의 요임(遙任)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일찍부터 중앙 관인들 사이에 존재하던 원격지 부임 기피 경향이 이 시기에 더욱 표면화되어, 겐에이(元永) 2년(1119) 미나모토노 시게스케(源重資)의 부임을 끝으로 닌안(仁安) 3년(1168) 다이라노 요리모리(平賴盛)의 이례적인 현지 부임까지 거의 반세

사 역시 관세음사령 장원을 불법으로 침탈하는 등 무력을 행사해 장원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52) 天仁 2년(1109) 6월 10일 「觀世音寺牒」 (『大日本古文書』 東大寺文書 別集 1-17-5) "可令管內諸國造立之由、雖被下知、是依西府之大廈、諸國未致其勤", 嘉承 2년(1106) 5월 25일 「太政官符案」 (『大日本古文書』 東大寺文書5 114-1). 결국 관세음사 가람의 복구는 섬연(遲宴)이라는 대송무역으로 경제력을 쌓은 승려에 의해 이루어졌고(嘉承 3년(1108) 6월 21일 「太政官符」 (『大宰府·太宰府天滿宮史料』 卷7)), 섬연은 그 공으로 관세음사 별당이 되었다. (『中右記』 天永 2년(1111) 5월 5일조.)

53) 『殿曆』 康和 3년(1102) 7월 3일조, 『殿曆』 康和 3년(1102) 7월 5일조.

54) 인명으로 추정되지만 원사료에 성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 발음을 추측할 다른 방법도 없어 그대로 이름만 표기하고 발음은 한자음대로 적는다. 『大日本史料』에서도 성이 없는 채로 그대로 두었다.

55) 『中右記』 永久 2년(1114) 8월 25일조.

기 동안 다자이후 장관이 교토에 머무르며 단 한 번도 다자이후 현지에 부임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56] 다자이후 장관 요임이 항상화되면서 다자이후의 관내 통제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다자이후 장관과 부관층의 유리가 심화되었던 것도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57] 오오에노 마사후사(大江匡房)가 두 번째로 다자이후의 장관인 곤노소치(權帥)에 임명되었을 때인 덴닌(天仁) 원년(1108) 2월 9일 조정에 올라온 다자이후 해(大宰府解)에는 마사후사가 현지에 부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자이후로부터 올라온 보고사항도 조정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의 안건이 조정 회의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구체적인 업무 불편이 토로되었다.[58] 이후에도 다자이후 관내 신민에 의한 방화와 살해가 셀 수 없는데도 임명되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현지로 내려가지 않아 그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등의 비판이 계속되었다.[59] 하지만 마사후사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다자이후에 내려가지 않았다. 후지와라노 나가자네(藤原長實)가 곤노소치로 있던 조쇼 원년(1132) 9월에는 무나카타 사(宗像社) 중도(衆徒)와 사사(社司) 사이의 전투가 원인이 되어 무나카타 사가 소실되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지만 '요즘 다이니(大貳), 쇼니(少貳)·지쿠젠노카미(筑前守)가 모두 재경하기 때문에, 다자이후의 안에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다.[60] 다자이후 장관인 곤노소치·다이니뿐만 아니라 차관인 쇼니까지 요임하

---

56) 田中篤子, 「大宰帥·大宰大貳補任表」, 『東京女子大學紀要論文』26·27, 44-93, 1973. 다자이후 장관의 권한. 표 참조. 12세기 전반세기 동안 다자이후 장관에 임명된 사람들의 부임 상황은 다음과 같다. 藤原保實는 康和 4년(1102) 정월 23일에 임명되었으나, 3월 4일에 사망했다. 藤原季仲는 같은해 6월 23일에 보임되어 일 년 후 부임했다. 大江匡房는 嘉承 원년(1106) 두 번째로 權帥에 보임됐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藤原顯季는 다이니에 보임되었고 부임했다. 源基綱는 곤노소치에 부임해 두 달 만에 다자이후에서 사망했다. 源重資(帥)가 平賴盛 이전 최후의 부임자이다.

57) 『職原抄』에서 大宰府 監典 "監典者公卿給時雖請任之、多是府中有緣之輩任是、称府官是也". 府官이란 원래 다자이후 관인의 총칭이었으나, 소치·다이니는 물론 쇼니까지 모두 요임하게 되면서 부임하지 않는 상급 관인들이 府官이 지칭하는 범위에서 빠졌다. 12세기 초의 府官이란 在府하는 監·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58) 『中右記』 嘉承 3년(1108) 2월 9일조.

59) 『中右記』 嘉承 3년(1108) 3월 5일조.

60) 『中右記』 長承 원년(1133) 12월 29일, 『長秋記』 長承 2년(1133) 9월 20일조. 다자이후·하카타는 지쿠젠 국에 위치했다. 쇼니가 지쿠젠노카미를 겸대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쇼니와 지쿠젠노카미 사이를 가운뎃점으로 연결했다.

게 되면서 다자이후 수장급 관인이 모두 현지에 부재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다자이후 관내 혼란을 격화시킨 것은 다자이후 장관의 권위를 훨씬 상회하는 중앙 권문들의 규슈 진출이었다. 11세기 후반에는 관리무역체제하의 관사 선매(官司先買)의 비중은 축소되었지만 무역선의 내항은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무역품의 양이나 방문 상인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61] 많은 무역품이 민간교역으로 돌려졌다. 이에 따라 무역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확보하고,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거나 재판매하여 교역 이익을 얻는 세력이 등장했다. 중앙의 기성 사사권문(寺社權門)은 지닌(神人), 요리우도(寄人) 등의 명목으로 사원기구 안에 유통·상업 집단을 조직했기 때문에 운송 면에서 유리했다. 또 이들은 대체로 율령제가 쇠퇴하면서 봉호(封戶) 및 원래 소유하던 장원이 약화되는 사태로 인해 세력 재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11세기 후반부터는 전체 장원군을 재정비하고 말사(末寺·末社)와의 결합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말사가 소유한 장원을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동대사(東大寺)의 관세음사(觀世音寺) 말사화, 연력사(延曆寺)의 대산사(大山寺) 쟁탈 등은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했던 사건이다. 여기에 우사(宇佐)·하코자키 하치만 궁(筥崎 八幡宮)을 통한 이와시미즈 하치만 궁(石淸水八幡宮)의 개입도 이루어졌다. 권문들은 다자이후의 부관(府官)이나 국아의 관인들과도 소령을 둘러싼 갈등을 빚었다.

---

61) 1066년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필집 『운주왕래(雲州往來)』에 실린 하카타에 있던 다자이후 장관(大宰大貳)이 이세노카미(伊勢守)에게 보낸 서장 속에 '송조 상객(商客)의 배가 도착했다. 화물의 수가 재작년보다 배로 많다고 한다'는 상황이 드러나 있고, 応德 2년(1085) 10월 29일 「다자이후 언상장(大宰府言上狀)」에는 '요즘 이객(異客)이 관내의 국들에 와서 관소에서 교류하고 시장을 열었다. 사람들은 성안을 가득 메워 성곽 바깥으로 흘러넘칠 정도'였다는 서술이 있다. 야마우치 신지는 엔기(延喜) 원년(901)부터 규안(久安) 6년(1150) 사이에 일본에 내항한 중국 상인 및 중국 상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모두 망라해 정리했다. 총 122건 중 문헌에 기록은 있지만 내항 시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열 건을 제외하고 남는 112건을 10년 단위로 끊어 경향을 보면, 990-1000의 8회, 1020-1030의 7회라는 두 기간을 제외하고 900년부터 1060년까지는 10년당 2-3회의 빈도로 상인이 내항했다. 그러나 1060년부터 금 건국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한 전란으로 대륙의 정세가 불안해지는 1120년대 이전까지 모든 구간에서 예년의 수치를 훨씬 웃돌고 있고, 1080-1090 구간에는 총 열일곱 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중국 상인이 찾아왔다.

강소(强訴)라는 수단을 통해 조정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대사사 권문의 행동을 다자이후 장관의 권한만으로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지(長治) 연간(1104-1106)에 벌어진 '가마도 궁(竈門宮) 사건'이 있다. 조지 원년부터 조지 3년까지 다자이후 관내 대산사(大山寺)의 별당직을 둘러싸고 교토의 연력사와 이와시미즈 하치만 궁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다. 이 분쟁은 중앙으로까지 파급되어 결국 대규모의 강소를 발생시켰고, 시라카와 원의 양보와 조정을 통해서 수습되었다. 결과적으로 다자이후 곤노소치(權帥)였던 후지와라노 스에나카(藤原季仲)가 직을 파면당하고 히타치 국(常陸國)으로 유배되었다. 후임자 오오에노 마사후사가 그의 첫 번째 곤노소치 보임 때와 다르게 부관과 조정의 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도 다자이후에 끝끝내 내려가지 않은 데에는 이 사건의 영향도 있었다고 여겨진다. 대산사는 송인의 물건을 사원 만도코로에서 위탁 거래하며, 하카타 강수를 요리우도로 조직하여 하카타 강수가 운항하는 '대산(사)선(大山(寺)船)'을 통해 무역품을 입수하던 사원이었다.[62] 이때 이와시미즈 하치만 궁과 연력사가 대산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대산사 별당직을 둘러싸고 경쟁했던 큰 이유는 이 사원을 통해 얻는 무역이익과 무관하지 않다.

중앙 권문의 침투, 다자이후 관내 사사들의 장원영주화, 그리고 부관들의 독자적인 성장 등은 원정기의 장원 증설 추세와 맞물려 관내 소란의 크고 작은 불씨가 되었다. 다자이후 장관의 요임화가 지속되면서 국가 권력이 혼란상을 정연하게 정리할 가능성은 희박했다. 이상의 상황을 볼 때 송 해상에게 무역품을 의뢰해 놓은 출자자라면 그 무역품을 최종적으로 건네받기까지 다자이후에 믿고 맡겨 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무역품 확보에 대한 걱정과 초조감이 간자키 장원 측 즉 무역을 지시한 원과 그 실행자인 다다모리가 명목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다자이후 관리무역

62) 永久 4년(1116)에 하카타 唐房에 머물렀던 송 해상 龔三郎은 '大山船'의 선장이었다. 『兩卷疏知礼記 · 上』 "永久四年歲次丙申五月十一日、筑前國薄多津唐房大山船龔三郎頭船房、以有智山明光房唐本、移書畢、已上", 『觀音玄義疏記』 "永久四年歲次丙申五月日、筑前國薄多津唐房大山船龔三郎頭船房、以有智山明光房唐本、移書畢云々". 또 建保 6년(1218) 하카타에서 살해된 간자키 장원과 관계가 있던 通事 船頭 張光安은 大山寺의 神人이기도 했다.

에 정면으로 대항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었다. 해상은 사전에 장원과 거래 계약을 해 놓은 물품을 관사 선매 대상물이 아닌 '잡물'이라고 신고했을 것이다. 만일 다자이후 부관이 적재품을 검사하는 도중에 이것을 조정과의 교역 대상인 '화시물'로 선정해 버리더라도, 결국 조정에서 도바 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회각을 명령하는 선지를 발급한다면 결국 민간교역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 간에 최종적으로 간자키 장원이 무역품을 입수할 수 있게 되므로, 다자이후의 무역관리 절차 자체에는 그다지 간자키 장원의 무역권을 저촉할 만한 요소는 없다.

따라서 간자키 장원측의 우려는 다자이후의 무역관리 절차 그 자체가 아니라 조정으로부터 안치·회각을 판정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었다고 해야 한다. 원칙대로라면 상인이 싣고 온 화물은 개인적인 선물 명목의 물건일지라도 '관사 안(官中)'에 보관되는 것이 원칙이었다.[63] 그러나 비단 다자이후 관사 바깥의 당방뿐만 아니라 다자이후에 속한 건물들(屋舍)까지 불타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으로 보아, 12세기 전반 다자이후의 무역품 보관 및 경비 기능은 절대적이지 않았다. 길면 수개월이 걸려서 조정으로부터 안치·회각 판정이 내려오기까지 다자이후 부근에서 방화와 살해를 동반하는 혼란상이 펼쳐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따라서 간자키 장원 측은 거래 대상자인 해상 주신과 무역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품이 다자이후 시설 안에 수납되어 조정에서 안치·회각의 결정이 내려올 때까지 길면 수개월에 달하는 장기적인 압류 상태에

63) 잡물도 원칙적으로는 조정으로부터 안치·회각을 기다리는 동안 다자이후의 창고에 압류되어야 했다. 9세기 중반 무역선 내항 후 관의 창고에 넣은 물건은 무역 절차가 완료되고 그 창고가 다시 열리기 전까지 개인적인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낼 수 없었다. 『高野雜筆集』 「徐公祐가 義空에게 보낸 서장」 ①唐大中6(852)-6-30 "家兄亦有狀及信物, 候官中開庫附往. 謹空", ②唐 大中6(852)-10-21 "別無異物堪獻, 錢香毬兩箇·幡子兩箇, 充供養, 家兄書中有綾一疋, 被官中收市出不得, 今將百和香十兩, 充代後處, 伏望照察. 謹空." (연도비정은 다음 논문에 따랐다. 田中史生, 「唐人の對日交易ー『高野雜筆集』下卷所收「唐人書簡」の分析からー」, 『経濟糸』(229), 11-23, 2006, pp. 14-18.) 따라서 관무역 후의 변제를 전제로 돈을 빌리는 등의 금융거래도 발생했을 것이다. 『參天台五台山記』 延久 4년 4월 18일 成尋은 북송에 도착했을 때, 자기 짐이 관세 부과를 위해 시박사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사용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관세 납부 및 관무역 완료 후의 변제를 전제로 하여 돈을 빌렸다. 中村翼, 「平安中期における貿易管理体制の変容」, 『待兼山論叢 文化動態論篇』(49), 1-25, 2015, pp. 9-10.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을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문관을 거치지 말라'는 명령의 기본 취지였다.

또 앞서 소개했던 대로 12세기 초 다자이후의 재청관인 즉 다자이후 현지의 부관은 무역 이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근대의 부사는 회각 관부를 보면서도 특히 이객을 우대하고 정에 맡겨 그 뜻을 헤아려' 관리무역이 '행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닌표(仁平) 원년(1151) 다자이후 대감(大監) 다네히라(種平)·스에자네(季實)가 500여 기의 병사를 이끌고 하코자키와 하카타에 대추토를 행했다. 이때 다네히라는 송인 왕승(王昇)의 후가(後家)를 비롯한 1600가(家)의 가재잡물을 운반해 갔다.[64] 이 사건은 다자이후 부관과 다자이후에 대항하는 하카타 인근의 무역에 참여하는 사사 세력 사이에 일어난 무역 갈등이었다. 다자이후 부관은 송 해상의 입국 관리와 무역품 검령을 관장한다는 지위상의 권한을 활용해, 해상과 정의적인 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무역품을 입수했다. 또 이 과정에서 간자키 장원에서처럼 무역품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권문무역의 실행자들과 마찰을 빚었을 것이다. 다자이후 부관의 적극적인 무역 이익추구 또한 간자키 장원이 다자이후의 무역관리를 배제하고자 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로써 간자키 장원이 다자이후 관리무역체제와 정면에서 충돌했던 이유 자체가 다자이후 관리무역체제의 약화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세기 초에 관리무역체제는 절대적인 철칙으로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고려하면 결국 미나모토노 모로토키가 내세운 '선지를 통해 무역의 가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이 내포하는 것은 관리무역의 절차 그 이상이었다고 봐야 한다. 모로토키가 글 안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그의 진짜 의도와 생각을 밝혀내야 그의 관점을 상대화하여 기사에 표현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모로토키의 비분강개를 불러온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사에 등장한 다른 인물들로 눈을 돌려야 한다.

---

64) 『宮寺縁事抄』 「筥崎造宮事」 文治 2년(1186) 8월 15일 「中原師尙勘狀」 (大日本古文書 家わけ四ノ五)

제 2 장 원근신과 원의 대외무역

제 1 절 시라카와·도바 원의 해상 세력 육성과 다이라노 다다모리

『장추기(長秋記)』 조쇼(長承) 2년(1133) 8월 13일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후지와라노 나가자네(藤原長實, 1075-1133)와 그의 연척인 미나모토노 모로토키(源師時, 1075-1136), 다이라노 다다모리(平忠盛, 1096-1153) 세 명으로 모두 교토에 있는 상태였다.

우선 미나모토노 모로토키부터 살펴보자면 그의 누이가 후지와라노 나가자네와 혼인했을 뿐만 아니라 나가자네와는 두 살 터울의 동년배였기 때문에 상당히 친밀하게 왕래하며 집안일까지 함께 논의하는 사이였다. 모로토키는 무라카미 겐지(村上源氏)가 최전성기를 누리는 데 크게 기여한 좌대신(左大臣) 미나모토노 도시후사(源俊房)의 차남이었다. 그는 삼십여 년에 걸쳐 이종사촌인 시라카와 천황의 제 삼황녀 레이시 내친왕(令子內親王)의 측근으로서 봉사했는데, 레이시 내친왕은 가쇼(嘉承) 2년(1107) 조카인 도바 천황이 즉위하자 그의 양어머니(准母)가 되어 황후, 태황태후가 된 인물이었다. 따라서 모로토키는 황후궁 곤노스케(皇后宮權亮)·황후궁 권대부(皇后宮權大夫)·태황태후궁 권대부(太皇太后宮權大夫)를 역임했다. 모로토키의 방대한 일기의 제목인 '장추기'도 그가 오랜 기간 황후궁(長秋宮)권대부로 근속했기 때문에 붙여진 호칭이었다.

모로토키는 다이지(大治) 5년(1130) 정월 8일에 종4위상을 받아 겨우 제대부(諸大夫)가 된 다이라노 다다모리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정4위하에 서임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번 지모쿠(除目)에 서위가 행해지는 모습은 하나같이 도리가 없다. 권력자와의 연고가 없는 가난뱅이는(無緣貧者) 의지할 곳이 없는 것과 같구나.'라고 기록했다.[65] 권력자의 측근에

65) 『長秋記』 大治 5년(1130) 정월 8일조, "本除目叙位被行体, 一無道理, 無緣貧者, 似無所憑." '無緣'는 권력자와의 연고가 없는 것, '强緣'은 권력자와의 연고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槇道雄, 『院政時代史論集』, 八木書店, 1993. p. 368.

서 봉사한 모로토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로토키의 형제 인관(仁寬)이 에이큐(永久) 원년(1113)에 이 스케히토 친왕(輔仁親王) 옹립 및 도바 천황(鳥羽天皇) 암살 기도와 관련되어 유배당한 후 연좌는 면했으나 근신을 명령받았다. 그 후 모로토키의 승진은 그의 출신에 비해 많이 지체되었다. 그는 마흔여섯의 나이에 참의(參議)에 보임됨으로써 겨우 공경의 반열에 올랐고, 참의에서 권중납언(權中納言)으로 승진한 것은 그로부터 8년이 지난 다이지 5년(1130) 10월이었다. 원에게 할당된 연도별 위계·관위 임명청구권인 어연급(御年給)의 사용으로 유례 없는 승진을 거듭한 다다모리 등 일급 원근신에게 불만을 가졌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이라노 다다모리의 가문, 이세 헤이시(伊勢平氏)의 지위 상승과 원의 지원은 불가분한 관계에 있었다. 이세 헤이시는 헤이안 중기 이후 발생한 중하급 귀족의 가격 분화와 경쟁 속에서 섭관가와 기타 권문에 근시하며 위계는 6위, 관직으로는 3등관인 판관(判官)급에 머무르는 귀족 신분 계급인 사무라이(侍)층에 속하게 되었다. 사무라이 상층 일부가 5위로 출세하기도 하지만 가격의 한계를 떨치기 어려워 여전히 4-5위 대부급으로까지 승진할 수 있는 제대부(諸大夫)층과는 확연히 구별되었고, 무력을 가지고 권문에 봉사하는 특수 기능자에 불과했다고 한다. 헤이시 역시 군사귀족으로서 교토 정계의 용병 역할을 해 왔다.[66]

'최하품(最下品)의 자'에 불과했던[67] 다다모리의 아버지 다이라노 마사모리(平正盛)가 권력의 정점인 시라카와 원(白河院)의 신임을 받게 된 것은 에이초(永長) 2년(1097)에 시라카와 원이 아끼던 황녀 유방문원(郁芳門院)의 명복을 빌기 위한 보리소 육조원(六條院)에 이가 국(伊賀國) 도모다 장원(鞆田庄)을 기진하면서부터였다.[68] 이후 마사모리·다다모리 부자는 무력 면에서 봉사를 거듭하며 시라카와·도바 원정 속에서 파격적인 지위 상승을 이루었다. 그 첫발은 마사모리가 '천하 제일의 무용을

66) 高橋昌明, 『淸盛以前—伊勢平氏の興隆—』, 平凡社, 1984, pp. 49-50.
67) 『中右記』, 天仁 원년 정월 24일조.
68) 『平安遺文』 1382호 에이초(永長) 2년(1097) 8월 25일 「六條院領伊賀國山田村鞆田村田畠注文」.

갖춘 무사(天下第一武勇之士)'로서 명성이 높았던 미나모토노 요시이에(源義家)의 차남 요시치카(源義親)를 성공적으로 진압했을 때였다. 이에 대한 상이 마사모리가 교토로 돌아오지도 않은 시점에 내려졌는데, 마사모리를 이나바노카미(因幡守)에서 더 높은 등급의 국인 다지마 국의 국사(但馬守)로 임명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무리 요시치카를 토벌하는 것이 추토사(追討使)가 파견될 정도의 중요한 임무였다고는 해도, 그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만으로 수여되기에는 상당히 큰 상이었던 듯하며 특히 마사모리의 신분이 낮았던 것까지 고려하면 파격적인 우대였다. 당시 공가(公家) 사회에서는 '최하품의 자가 제1국에 임명되는 것은 특수한 총애에 의한 것인가'라고 평가되었다.[69] 이 요시치카 추토의 배후에는 시라카와 법황이 연출자로 있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원근신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도모다 장원을 기진한 것 외에 특별히 공을 세운 적이 없던 마사모리에게 성장의 기회이자 구실을 제공했다는 것이다.[70]

마사모리는 '추토사(追討使)'에 임명됨으로써 그 권위를 활용해 '서해, 남해의 명사'를 자신의 수병으로 조직하여 세력을 불려 갔다.[71] 하지만 마사모리는 도모다 장원을 시라카와 원에게 바쳤을 때에 이미 불혹에 가까운 나이였기 때문에 끝내 원승전(院昇殿)은 허락받지 못했다. 반면 다다모리는 아버지의 활약에 힘입어 스물 다섯의 나이에 원승전을 허락받아 원 덴조비토(院殿上人)가 되었고[72] 덴쇼(天承) 원년(1131) 7월에는 도바 원의 4위별당(四位別當)의 지위에 있었다.[73] 원근신이란 원사 개인과 원의 일대일 결합으로 인해 성립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이지 4년(1129)의 시라카와 원 사망으로 인한 시라카와·도바 원 정권 교체는 큰 정치적 위기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다모리는 큰 고비나 어려움 없이 도바 원정에서도 출세를 계속했다. 당시 무사의 원승전은 '천하 제일의 무용을 갖춘 무사'라고 불린 미나모토노 요시이에조차 원 덴조비토(院殿

69) 『中右記』, 天仁 원년 정월 24일조.
70) 高橋昌明, 『清盛以前—伊勢平氏の興隆—』, 平凡社, 1984, pp. 70-71.
71) 『長秋記』 元永 2년(1120) 12월 27일조.
72) 高橋昌明, 『清盛以前—伊勢平氏の興隆—』, 平凡社, 1984, p. 148.
73) 高橋昌明, 『清盛以前—伊勢平氏の興隆—』, 平凡社, 1984, p. 256.

上人)가 되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기색이 있다'는 말이 나왔을 만큼 사회적으로 쉽게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74] 또 다다모리는 시라카와·도바 원의 덴조비토에 그치지 않고 조쇼 원년(1131)에는 천황의 정전에 오를 수 있는 권리인 내승전(內昇殿)까지 획득했다.[75] 무사가 내승전을 허락받은 것은 백여 년 전의 미나모토노 요리미쓰(源賴光)·미나모토노 요리쿠니(源賴國) 부자 이후로 처음이었다.[76]

다다모리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다이지(大治) 4년(1129)과 호엔(保延) 원년(1135)에 추토사에 보임되었다. 마사모리에게 명령된 추토 활동이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출정이었던 것에 반해, 다다모리에게는 각각 '산양도·남해도(山陽南海道)'·'서국(西國)'이라는 넓은 지역 범위 안의 '해적'을 목표로 하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군사활동이 명령되었다. 마사모리 이후로 헤이시의 수군 실력이 현격하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이지 4년(1129) 3월의 출정은 태정관에서 발급된 정식 추토 선지(追討宣旨)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시라카와 원이 게비이시 별당(檢非違使別當)이자 원근신이었던 후지와라노 사네유키(藤原實行)를 움직여 산양도(山陽道)와 남해도(南海道)의 국아(國衙)에 '게비이시 이(檢非違使移)' 전달해 추토 활동에 대한 협력을 요청함으로써 실현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시기에 특별히 조정에서 추토사를 파견해야 했을 만큼 해적이 횡행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의 출정은 시라카와 원

74) 『中右記』 承德 2년(1098) 10월 23일조 裏書.

75) 『中右記』 長承 원년(1132) 3월 22일조. 다다모리는 그동안 이전부터 공가 귀족의 교양인 와카와 의례 무용까지 섭렵하는 등 공가사회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다. 다다모리는 和歌에도 뛰어나 崇德天皇이 주최한 歌合에도 참여했으며, 그가 남긴 와카 38수는 『平忠盛集』·『故刑部卿詠』·『忠盛朝臣集』·『平忠盛朝臣集』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후세까지 전해졌다. 또 그는 元永 2년(1119)의 上賀茂社 臨時祭, 保安 원년(1120)의 石淸水八幡宮 臨時祭에서 舞人로 선발되어 의례에서 춤을 추었다. (『中右記』 元永 2년 11월 19일조, 保安 원년 3월 18일조.) 천황의 기원을 주목적으로 하여 매년 열리는 행사였던 만큼 舞人에는 주로 천황의 근신이 임명되었고, 마이비토를 맡는 것은 귀족사회에서 승진의 큰 계기가 되었다. 이 역직이 무사가 아직 본격적으로 대두하지 않은 시기에 다다모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76) 高橋昌明, 『淸盛以前—伊勢平氏の興隆—』, 平凡社, 1984, p. 149.

이 다다모리에게 추토사의 권위를 부여하여 세토 내해의 해적을 수중에 넣게 하려는 구실에 불과했다고 보았다.[77] 유감스럽게도 이때의 해적 추토의 경과나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조쇼 3년(1134) 윤12월 12일에 헤이시 제일의 가신(家人)인 다이라노 이에사다(平家貞)가 해적 추포의 상으로 사에몬노조(左衛門尉)에 임명되었던 것을 보면 추토 활동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78]

다다모리가 호엔(保延) 원년(1135)에 두 번째로 해적 추토사에 보임된 것도 도바 원의 뜻이었다. 공경 회의(陣定)에서 비젠노카미(肥前守) 다이라노 다다모리와 게비이시 미나모토노 다메요시(源爲義)를 후보로 제출하자, 도바 원은 '다메요시를 보내면 가는 길에 있는 국들이 멸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다모리 아손이 또한 비젠 국사이기도 하니 (추토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편의가 있을 것이다. 조속히 추토하라는 뜻을 다다모리 아손에게 명령함이 마땅하다'며 다다모리를 선택했다.[79] 이 시기가 되면 공경들도 대체로 '다다모리가 서해에 세력이 있다는 평판이 있으니 그를 보내는 것이 가장 편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정도로 다다모리의 서국 제해권은 확고해졌다.[80] 다다모리는 같은 해 8월 19일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구경하는 가운데, 사로잡은 해적을 교토로 이송해 게비이시에게 인도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장추기』의 기술은 아주 흥미롭다. '이중 다수는 해적이 아니다. 단지 다다모리의 가신(家人)이 아닌 자를 해적 포로라고 칭하여 진상했다고 한다.'[81] 이 문장은 이때까지 헤이시에게 명령된 추토 활동의 의미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다카하시 마사아키(高橋昌明)는 이때 언급되는 헤이시의 수병들이 에이큐(永久) 원년(1113) 다다모리의 아버지 마사모리가 비젠노카미에 보임된 이래 꾸준히 현지 접촉 및 장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포섭된 재지

---

77) 高橋昌明, 『淸盛以前—伊勢平氏の興隆—』, 平凡社, 1984, p. 165.
78) 『中右記』 長承 3년(1135) 윤12월 12일조.
79) 『中右記』 保延 원년(1135) 4월 8일조.
80) 『長秋記』 保延 원년(1135) 4월 8일조. "諸卿多, 忠盛西海有々勢之聞, 被發遣尤有便歟".
81) 『長秋記』 保延 원년(1135) 8월 19일조, "此中多是非賊, 只以非忠盛家人者, 号賊虜進云々."

의 해적들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에이큐 2년(1114) 9월 마사모리가 자택에 진서(鎭西) 강도 다섯 명을 숨겨주었던 일을 방증으로 들었다.[82] 이때 게비이시(檢非違使) 나카미카도 무네타다(中御門宗忠)가 시라카와 원에게 이 사실을 고발하자 시라카와 원은 알아보고 나서 지시하겠다고 무네타다를 일단 돌려보냈다. 다음날 아침 무네타다가 찾아오자 시라카와 원은 마사모리에게 물은 바 진서 강도는 확실히 없었다고 대답했다.[83] 교토의 치안을 담당하는 게비이시가 원이 총애하는 근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원에게 직접 보고할 정도로 확신을 가졌던 사건에 대하여, 시라카와 원은 마치 마사모리를 감싸는 듯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어 흥미롭다.

시라카와·도바 원은 마사모리와 다다모리를 조정의 군사권을 발동하는 추토사라는 직위에 임명하여, 그들에게 조정의 권위를 바탕으로 재지세력을 규합하고 조직화할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다다모리의 추토사 파견은 주로 서국의 광범한 해상 세력을 겨냥하고 있었다. 원의 명령을 받은 다다모리는 추토를 명목으로 산양도와 남해도를 세토 내해의 해상 세력을 진압했고, 간자키 장원에서처럼 그들을 장원 지배 조직 안으로 포섭하여 영역지배 실현과 수운·교역 실무 등의 목적에 활용했으며, 제안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해적'으로 규정해 교토로 송환하여 현지에서 배제해 갔다. 다다모리의 아들이 후에 일본의 대송무역 체계를 장악하는 헤이시 정권의 최고 권력자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淸盛)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마사모리·다다모리 대의 해상 진출은 후대에 기요모리가 대송무역의 전성을 누리는 밑거름이 되었다.

다다모리가 간자키 장원의 아즈카리도코로(預所)에 임명된 사실은 전술한 헤이시의 제해권 장악 과정에서 드러난 시라카와·도바 원의 해상 세력 육성 의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다모리는 시라카와 원정 이후로 계속해서 원 미마야(院御廐)에서 중직을 맡았다.[84] 다다모리는

---

82) 기요모리 이전, p. 144. 永久 2년 3월 9일에는 해적 9명을 잡아 올렸으며, 永久 2년 9월 25일, 26일, 10월 5일조에서 '鎭西 강도 5명을 교토 저택에 숨겼다'는 고발을 받았다. 둘 모두 『中右記』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다.

83) 『中右記』 永久 2년(1114) 9월 25일조, 9월 26일조.

84) 『長秋記』 大治 4년(1129) 8월 2일조, "備前守忠盛朝臣鳥羽殿御廐預事". 다카하시 마사아키는 『淸盛以前』에서, 다다모리가 도바 원정 발족 때 미우마야 아즈

세토 내해(瀨戶內海)의 교통을 장악했으며 원 미마야 도네리(院御廐舍人)를 통해 국내 유통 체계도 손에 넣었다. 이는 즉 다다모리가 고가의 무역품을 구입한 후 그것을 외부에서 탈취하거나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지킬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교토로 무역품을 수송하거나 판매하는 유통 상인 조직을 활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다다모리는 원의 무역 기지였던 간자키 장원의 담당자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또 간자키 장원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자키 장원은 규슈 서북부 사가 현(佐賀縣) 동부 아리아케 해(有明海) 연안 간자키 군(神崎郡) 간자키 정(神崎町)에 위치했던 대토지 장원으로,[85] 9세기 초에 칙지전으로 설정되었다.[86] 조겐(長元) 9년(1036) 고이치조 상황(後一條上皇)이 고스자쿠 상황(後朱雀上皇)에게 전령한 어령소(御領所) 중 '간자키 어장(神崎御庄)'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 간자키 장원은 9세기 후원령 칙지전으로 설정된 후 대를 거듭하여 원에서 원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된다.[87] 간자키 지역의 칙지전이 장원으로 성립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조와(長和) 4년(1015) 관백 후지와라노 미치나가의 일기에서 '간자키 어장(神埼御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므로, 이보다는 이른 시기였다고 봐야 한다.[88] 간자키 장원은 전체 원령 장원

카리를 이어서 인정받았고 保延 2년(1136) 정월 29일 이후까지 아즈카리의 자리에 있었다고 보았다. 다다모리는 늦어도 保延 5년(1139) 2월부터는 院御廐別當이었다.

85) 현재는 오랜 간척의 결과로 내륙부에 위치해 있지만, 헤이안 말기까지는 有明海에 직접 면해 있는 장원이었다. 瀨野精一郎, 「解說」, 『肥前國神崎庄史料』, p. 223.

86) 『類聚國史』권 제 159, "仁明天皇承和三年十月癸亥、肥前國神埼郡空閑地六百九十町、爲勅旨田". (『肥前國神崎莊史料』)

87) 『平範國記』 長元 9년(1036) 12월 22일조.

88) 『御堂關白記』 長和 4년(1015) 7월 15일조. 원령 장원은 일반적으로 寄進뿐만 아니라 後院이 생기며 설정된 칙지전 및 封戶로부터 기원하는 경우가 많다. 太上天皇이 출현할 때마다 설정되는 칙지전과 봉호가 개발·추가적 기진·便補 등에 의해 장원화해가면서 큰 왕가령 장원군이 형성된다. (坂本賞三, 「院領莊園と勅旨田」, 『日本歷史』(467), 73-75, 1987. p. 75) 이렇게 집적되는 '王家領莊園'은 오직 治天之君에 의해 처분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원령 장원'으로도 불린다. 원령 장원은 後院領(院廳領)·御願寺社領·(황실·섭관가 출신자가 아닌)女院領·皇族領(親王·內親王)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시라카와 원정 하에서 새롭게 창출된 종교적 권위인 法親王 즉 仁和寺 御室가 영유하는 소령들도 천황가의 가장이자

중에서도 재지영주가 바쳐서 장원이 된 것이 아니라('寄進地系莊園') 후원령 칙지전의 내력을 가진 원의 고유한 사적 재산이었으므로 본소권(本所權)이 강력했다.[89]

원령 장원의 실제적인 경영과 관리를 맡는 직책인 아즈카리도코로(預所)에는 '다소의 예외를 빼면 거의 모두 원근신 혹은 그와 연이 있는 자(緣者 · 親近者)'가 임명되었다.[90] 간자키 장원의 경우에는 다이지(大治) 2년(1127) 이후 다이라노 다다모리가 아즈카리도코로의 직에 있었다. 다다모리가 사망한 1153년에 또 다른 대표적인 원근신 신제이 법사(信西法師)에게 '간자키 장원의 일'이 맡겨졌다. 신제이가 헤이지(平治)의 난(1160)에서 사망한 이후로는 헤이시 정권기(平氏政權期) 내내 헤이시 세력에 귀속되었을 것이다.[91] 간자키 장원은 원의 총애가 깊은 유력 원근신이 관리자로서 연이어 임명될 정도로 원령 중에서도 중요한 곳이었다. 또 조쇼 2년은 다다모리가 아즈카리도코로가 된 지도 최소 7년이 지난 때였으므로, 간자키 장원 내부의 지배도 안정화된 상태였다.

간자키 장원이 언제부터 무역에 관여하기 시작했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간자키 장원에서 이루어진 무역에 관여했던 것이 확실한 다다모리가 이 장원의 관리자로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는 다이지 2년(1127)년이다.[92] 물론 그 이전에도 조와 4년(1015) 입송승 염구(念救)가 일본에

닌나지 오무로의 친부인 원이 진지권 발동의 배후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본소는 원이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특히 仁和寺御室廳에는 독자적인 무력기구가 없으므로, 院北面武士가 장원의 문제 해결에 투입되었다. 이로부터도 닌나지 오무로 소속 장원에 대한 원의 관여를 알 수 있다.

89) 『平範國記』 長元 9년 12월 22일조에 인용된 상전 문서에서 전령 대상지는 福地御牧 · 會賀御庄 · 神崎御庄 · 廣忍御庄이다. 다카하시 마사아키는 이 기사에 등장하는 소령들을 '후원령 중에서도 '대대로 전해지는 것(代々のわたり物)'이라고 주목한다. 간자키 장원 · 에가 목장 · 후쿠치 목장이 천황의 사적 재산인 후원령의 중핵이었다고 주장한다. 高橋昌明, 『清盛以前—伊勢平氏の興隆—』, 平凡社, 1984, p. 212.

90) 槇道雄, 「院政時代における院領莊園支配機構とその性格」, 『學習院史學』(18), 1-31, 1981, pp. 20-21.

91) 『台記』 仁平 3년(1153) 12월 8일조. 瀨野精一郎, 「解說」, 『肥前國神崎莊史料』, 吉川弘文館, 1975, pp. 230-231.

92) 『鯨珠記』 大治 2년(1127) 5월 26일조. (平田俊春, 『私撰國史の批判的研究』, 國書刊行會, 1982, pp. 568-574.)

들어왔다가 다시 송으로 출국할 때, 후지와라노 미치나가의 지시로 귀족들이 그를 통해 '대송국 천태산 대자사(大宋國天台山大慈寺)'에 보내는 물건을 호위했던 '간자키 어장사 도요지마 방인(神埼御庄司豊嶋方人)'이 존재했다. 도요지마 씨는 다자이후 부관직을 일족 단위로 세습해 갔던 성씨였다.[93] 따라서 11세기 초부터 간자키 장원과 대송무역이 연관되어 있었음이 짐작된다.[94] 간자키 장원은 하카타에서 가까운 장원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소규모의 무역품 구입이나 헌상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원의 직접적인 무역 간여의 시작은 사료로 확인되는 한 다다모리의 아즈카리도코로 재직 시기부터였다. 간자키 장원의 교역 간여는 다른 권문에 비하면 늦은 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이미 사사간의 소유권 분쟁이 일단락된 하카타 현지에 들어가 권문사사의 틈바구니에서 고군분투하기보다는, 하카타 현지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지배권이 안정되어 있는 기존 장원이 안전한 발판으로 선택되었을 것이다.[95]

이상을 고려하면 도바 원정기 초반의 간자키 장원에서 보이는 다이라노 다다모리의 무역 활동을 원의 명령을 수행했다는 것 이상의 자율성을 가진 것으로서 평가하는 것에는 의문이 생긴다. 다다모리의 해상 진출의

---

93) 石井進, 「大宰府機構の変質と鎭西奉行の成立」, 『史學雜誌』68(1), 1-37, 1959, pp. 5-6.

94) 『御堂關白記』 長和 4년(1015) 7월 15일조, "人々加物有其數、領(預)念救、神埼御庄司豊嶋方人參上、件男下向、仍件念救付方人下向、件物等令領知方人、".

95) 그러나 간자키 장원은 하카타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곳은 아니었다. 간자키 장원이 있었던 현재 간자키 시 간자키 정은 세부리 산 남쪽의 비교적 평평한 구릉지대이다. 간자키 장원에서 다자이후로 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경로는 세부리 산의 동쪽 기슭을 따라 도는 평지 루트이다. 이 경로를 선택할 경우 간자키 장원에서 다자이후 정청까지의 거리는 40킬로미터가 안 되며, 고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평평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다자이후와 그 외항 하카타로 접근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을 것이다. 한편 이 지역을 직접 답사한 고미 후미히코(五味文彦)는 간자키 장원 내 櫛田神社로부터 이곳으로부터 勸請되어 간 那珂川 中洲의 博多總鎭守 櫛田神社까지의 연공 운상 루트를 추정하여, '坂本峠에서 七曲峠를 거쳐 세부리 산지를 넘는' 경로를 상정했다. 이 경로는 최고 고도가 500m이고 급경사가 없으며 겨울에도 통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운송에 편리했다. 또 세부리 산을 내려온 후부터는 하카타까지 那珂川 수운을 활용할 수도 있었다. 五味文彦, 「荘園の開發と交通」, 『体系日本の歴史 5 鎌倉と京』, 小學館, 1988, pp. 262-264.

모든 과정에는 원 권력의 강력한 후원이 작용했고, 다다모리가 무역에 참여하는 발판이 되었던 것은 원령 장원과 원 미마야라는 원의 가산기구였다. 간자키 장원은 '관부(官府) 및 권문세가의 방해'가 배제되며 오로지 천황가의 가장인 '치천(治天)'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던 가산이었다.[96] 헤이시 정권이 강대해지는 와중에도 원을 본소로 하고 헤이시의 인물을 아즈카리도코로로 삼아 현지의 세력을 장관으로 조직한다는 시라카와·도바 원정기의 장원지배 기구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헤이시가 직접 본소의 지위에 오르는 일은 없었다.[97] 다다모리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자키 장원의 운영이 또다른 원근신 신제이 법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은 다다모리 대의 무역 경영을 포함한 원령 장원 간자키 장원 운영의 주도권이 원에게 있었음을 확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장추기』 조쇼 2년 8월 13일의 기사에서 '근신이 원숭이나 개처럼 구는 일'이라며 다다모리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렸던 모로토키의 서술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모로토키는 다다모리가 '직접 구다시부미(下文)를 작성하여 (도바 원의) 원선(院宣)이라고 주장(自成下文, 號院宣)'했다고 하는 나가자네의 말을 옮기면서, '부당한 주장을 하다(號)'라고 주로 해석되는 동사를 사용했다. 나가자네가 실제로 그 단어를 사용했거나, 적어도 그러한 뉘앙스로 말을 전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이 문장은 한때 다이라노 다다모리가 원선을 참칭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다다모리가 자의로 원선을 참칭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당시 도바 원은 전제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다다모리는 바로 전년에 무사로서는 드물게 내승전을 허가받았다고는 해도 다른 공가 출신 원근신보다 현격하게 뛰어난 지위를 누리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사실을 뒤로하고 『장추기』 기사 안에 표현된 내용만 보더라도, 이때의 간자키 장원측의 무역권 주장을 다이라노 다다모리의 독단적인 일탈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자이후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이 조치는 다자이후의 장관이자 유력한 원근신인

96) 永久 2년(1115) 12월 13일 「院廳下文」. (『肥前國神崎莊史料』)
97) 田中文英, 『平氏政權の硏究』, 思文閣出版, 1994, pp. 64-66.

후지와라노 나가자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다. 기사에도 나타나 있듯 나가자네는 곧바로 원에게 고하러 갈 수 있는 인물이었다. 이는 곧 정말로 다다모리가 원선을 참칭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다다모리에게 도바 원이 처벌 없이 자신의 행위를 묵인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이로부터 마사모리 이래로 헤이시가 해상 세력을 키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시라카와·도바 원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결국 조쇼 2년의 이 사건에도 간자키 장원의 본소이자 원근신 다이라노 다다모리의 주인인 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모로토키의 비분강개는 다다모리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공가 귀족으로서, 본인의 영달이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라카미 겐지의 주류가 자기 아버지에서 삼촌으로 옮겨 가는 상황을 목격한 '권력자와의 연고가 없는 가난뱅이(無緣貧者)'로서, 원근신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원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질서와 그것을 주도하며 기존의 격식을 깨뜨리는 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된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일본의 폐망', '외조의 치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다이라노 다다모리의 횡포를 일컫기에는 너무 거창한 느낌이 든다. 모로토키가 '송나라 사람이 도착했을 때는 다자이후의 관인이 존문을 하고 신속하게 상주를 거쳐서 안치·회각은 선지에 따르는 바'라고 하는, 이미 다자이후의 관인조차 무시하는 일이 왕왕 있던 관리무역체제의 원칙을 소환한 것에서, 방점은 '선지'로 대표되는 기존의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에 찍혀 있는 것이다.

『장추기』 조쇼 2년 8월 13일 기사의 서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로토키가 다다모리 한 사람이 아니라, 원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질서에 대하여 품고 있던 불만이었다. 다만 기사 본문에서 서술자 모로토키의 주관적인 현실을 벗겨내고 나면 갑자기 붕 뜨게 되는 것이 후지와라노 나가자네의 입장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후지와라노 나가자네는 공가 귀족임과 동시에 시라카와·도바 원정기의 대표적인 원근신이다. 이 사건의 최초 문제 제기자이자 실제로 표면에 나서서 행동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후지와라노 나가자네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고 왜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모로토키에게 이 일을 상의하게 되었는가? 즉 모로토키의 관점을 걷어낸 상태의 이 사건의 내용과 의미를 후지와라노 나가자네의 입장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원근신 후지와라노 나가자네의 입장

후지와라노 나가자네(藤原長實)는 시라카와 원(白河院)의 대표적인 원근신 후지와라노 아키스에(藤原顯季)의 장남으로, 형제들과 함께 시라카와 원은 물론 도바 원의 깊은 총애를 받았다. 아키스에는 시라카와 원의 유일한 유모인 지카코(親子, 魚名流 藤原親國의 딸)의 아들로 원의 젖형제(乳兄弟)였으며, 시라카와 천황의 친모 후지와라노 시게코(藤原茂子. 閑院流)의 형제인 후지와라노 사네스에(藤原實季)의 유자(猶子)이기도 했다.[98] 아키스에 · 나가자네 부자는 수령국사(受領國司)를 역임해 원에게 경제적으로 봉사했던 사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키스에는 가호(嘉保) 원년(1094)부터 사망하기 한 해 전인 호안(保安) 3년(1122)까지, 나가자네는 호안 4년(1123)부터 다이지(大治) 3년(1128)까지 수리대부(修理大夫)의 직에 있었다. 또 나가자네는 에이큐(永久) 6년(1118)부터 조쇼(長承) 2년(1133)까지 구라노카미(內藏頭)를 겸하고 있었다. 재정과 관련된 조정의 중직을 거의 이 부자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것이다.

특히 수리직(修理職)은 황거 건설을 직장으로 하는 영외관(令外官)이었다. 헤이안 후기에는 율령 관사의 재정이 형해화되며 가산(家産)을 활용한 직의 수행이 곧 직 보임자의 수익으로 연결되고 그 직이 가업처럼 일족 안에서 세습되는 경향이 일반화되었다.[99] 또 원정기에는 다이리(內

---

98) "閑院贈相國實季爲猶子" (『尊卑分脈』). 猶子는 말 그대로 양육과는 무관한 의제적 부자관계를 총칭하는 말이다. 16세기에 쓰인 가마쿠라 막부의 기본법 御成敗式目의 주석서 『式目抄』 중 23조 '여인양자의 일'에서, '유자란 중국에서는 조카를 말한다. 예기에 형제의 아들은 유자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타인이더라도 내 자식으로 삼으면 猶子라고 한다. 이 역시 '내 자식과 같다(猶子)'고 하는 뜻에 맞으므로 일리가 있는 듯하다. 양자와 猶子의 단어의 뜻은 다르지만, 내 자식으로 삼는다는 점은 같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11세기 이후로는 유자는 형제나 일족, 연척 혹은 타 씨족 등으로 확장되어, 동일 인물에 대하여 양자와 유자의 단어가 혼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猶子는 계약 · 약속에 의해 성립하며, 그 목적은 ①일족 결합의 강화, ②加階 · 任官의 편의, ③혼인 · 입궁(入內), ④타 씨족과의 결합, ⑤상속 등으로 다양하다. (『國史大辭典』 · 「猶子」) 아키스에의 경우에는 본래의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승진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99) 佐藤進一, 「第一章 王朝國家」, 『日本の中世國家』, 岩波書店, 1983, pp. 11-62.

裏)와 원어소(院御所)가 빈번하게 소실되었다. 이런 상황에 수리직에 장기 보임되었다는 것은 곧 수차례에 걸친 다이리 조영을 감당할 만큼의 경제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 경제력은 원이 인사권을 행사해 그들 가문의 인물을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국의 수령국사(受領國司)로 임명해 주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100]

또 시라카와 상황은 다섯 살로 천조(踐祚)한 도바 천황의 후견을 목적으로 당시 어소였던 사토다이리(里內裏) 오오이미카도히가시도인도노(大炊御門東洞院殿) 부근의 귀족 저택들을 원어소로 이용했다. 이때 아키스에 · 나가자네의 로쿠조도노(六條殿) · 하치조도노(八條宅) · 오오이미카도마데노코지 저택(大炊御門万里小路亭)도 자주 원어소로 사용되었다. 원어소는 조근 행렬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여야 했기 때문에 규모와 양식 두 면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갖춘 저택이어야 했다.[101] 아키스에의 로쿠조도노는 심지어 '나카노인(中院)'이라고까지 불렸으며, 나가자네의 오이미카도 저택은 덴닌(天仁) 원년(1108) 8월 이후 에이큐(永久) 2년(1114) 말까지 약 6년 동안 시라카와 법황의 어소로 쓰였다.[102]

나가자네에 대한 시라카와 · 도바 상황의 두터운 총애는 기존 공경사회의 비판을 불렀다. 특히 나가자네가 기존 가격인 제대부(諸大夫)를 넘어서는 화려한 관력을 누린 것이 문제시되었다. 나가자네는 사망한 후 '미증유의 무능한 사람이 납언(納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었다.[103] 그는 다이지 4년(1129) 4월 5일에 참의(參議)에 임명되었고, 그로부터 겨우 1년 반이 지난 다이지 5년 10월 5일에 정3위 권중납언에 임명되었다. 이것은 '재지(才智) 때문도 아니고 지략(英華) 때문도 아니고, 근

---

100) 白河院은 원정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堀河天皇 親政期에도 호리카와 천황과 關白 藤原師通의 반대를 거부하고 원근신을 수령국사로 임명했다. 원근신이 국사로서의 고과평가를 받을 때 조세 징수를 완료하지 못해 재임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원근신을 수령국사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호리카와 천황과 의견 마찰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 玉井力, 『平安時代の貴族と天皇』, 岩波書店, 2000, pp. 73-74.

101) 高橋昌明, 『院政期の內裏 · 大內裏と院御所』, 文理閣, 2006, pp. 162-166.

102) 河野房男, 「白河院近臣団の一考察ー藤原長實を中心としてー(一)」, 『日本歷史』(152), 20-38, 1961, pp. 30-31.

103) 『中右記』 長承 2년(1133) 8월 19일조.

속 기간이 긴 것도(年勞) 아니고, 외척(戚里)이어서도 아니니, 세간에서 자못 미심쩍게 여기는′ 관행 외 인사였다. 당시 사람들은 나가자네가 석 달 전이었던 시라카와 원의 장례에서 ′유골을 뿌려 드렸던 것′ 즉 이를 포함한 시라카와 원 생존 시기 동안의 원근신으로서의 봉사가 유일한 승진의 이유였다고 생각했다.[104] 나가자네는 시라카와 원의 장례 때 관(棺)을 만들어 바쳤고 입관 직전에는 고인의 얼굴을 물로 닦고 북쪽을 향해 눕히는 일을 손수 행했으며,[105] 다비식 후에는 유골을 골라내어 금동 항아리(金銅壺)에 넣고 연도(筵道)를 따라 걸으며 뼛가루를 뿌린 바 있었다.[106]

당시 참의 근속 연수가 8년에 달했던 나가자네의 조카 후지와라노 고레미치(藤原伊通)는 이때의 인사에 불만을 품고 사직하여 출사하지 않았다.[107] 나가자네와 그 가계는 원의 신임에 기초하여 제대부라는 가격을 넘어서는 우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 내의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공경집단으로부터는 악평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섭관기 이래 다자이후 장관을 일족에서 연이어 맡는 경향이 있었음을 생각하면, 나가자네의 다자이후 장관 보임에는 아버지 아키스에가 다자이다이니(大宰大貳)를 경험했던 것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108] 아키스에의 다자이다이니 보임 또한 원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밀어붙여진 감이 있었다. 보임 당시 수리대부가 다이니를 겸임하는 것에 대

---

104) 『中右記』 大治 5년(1130) 10월 5일조.
105) 『長秋記』 大治 4년(1129) 7월 8일조.
106) 『長秋記』 大治 4년(1129) 7월 16일조.
107) 고레미치의 參議 보임은 保安 3년 정월 23일이었다. 고레미치는 賴宗流 藤原宗通와 아키스에의 딸 사이의 차남이었으므로, 나가자네는 그의 외숙이었다. 『公卿補任』 大治 5년. 參議從三位藤原伊通 三十八 右兵衛督二月日任中宮權大夫. 長實卿任納言後辭所職籠居. 而不被下辭書不許. 大治 6년. 前參議從三位藤原伊通 三十九 長實卿任中納言後, 辭所職籠居. 去年十二月十六日被下辭書也. 止中宮權大夫右兵衛督三官畢. 『長秋記』 大治 5년 11월 4일조. "右兵衛督伊通愁不任中納言之事, 除目以下不出仕" 고레미치가 다시 관직에 나오는 것은 長承 2년(1133) 9월 21일의 從三位 權中納言 보임 때였다. 공교롭게도 長承 2년 8월 19일에 나가자네가 사망한 때로부터 한 달 남짓이 지난 시점이었다.
108) 石井進, 「大宰府機構の変質と鎭西奉行の成立」, 『史學雜誌』68(1), 1-37, 1959, p. 19. 正木喜三郎, 「大宰府領形成の歷史的背景—大宰府の変質と莊園ㆍ公領制—」, 『東海大學紀要 文學部』(52), 27-68, 1990, p. 59.

한 공경의 반발이 있었지만 아키스에가 후지와라노 사네스에의 유자(猶子)로서 도바 천황의 외숙이라는 이유로 다이니 보임이 강행되었다.[109] 나가자네는 호안 4년(1123)에서 다이지 3년(1128) 까지 다자이다이니였고, 조쇼 원년(1131)에 다자이 곤노소치(大宰權帥)에 임명되며 두 차례나 다자이후의 장관을 맡게 되었다. 물론 그는 당시의 관행대로 단 한 번도 현지에 부임하지 않았다.

나가자네는 곤노소치에 임명된 지 일 년도 되지 않은 조쇼 2년(1133) 7월에 말라리아(惱瘧疾)에 걸렸고,[110] 한동안 상태가 호전된 듯 보였으나 8월 19일에 사망했다.[111] 일주일 전인 8월 13일만 해도 간자키 장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망이었다. 이와 같은 나가자네의 건강 문제로 간자키 장원과 관련된 다자이후 차원의 항의는 더 진행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끝났다.

하지만 죽음 직전까지 나가자네는 남에게 부탁해서라도 원에게 올릴 상서를 완성하는 등 간자키 장원의 다자이후 개입 거부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그 상소의 내용은 전하지 않지만, 『장추기』 기사로부터 나가자네의 목적과 의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나가자네가 이 사건을 원에게 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 일은 지극히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앞 절의 논의로부터 다다모리의 배후에 도바 원의 의사가 있었음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도바 원의 의사가 이미 다다모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명된 상황에서 다시 원에게 이에 대한 항의를 전달한다는 것은 일견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원의 신임이 곧바로 실질적인 정치적 지위 상승 및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시라카와·도바 원정기에, 원근신이라는 지위에 기초해 영화를 누렸던 원근신이 원의 심기를 해칠 수도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가자네의 주관적인 상황 그리고 '면

109) 『中右記』 天永 2년(1111) 정월 23일, 『除目部類記』 (崇仁御記) 天永 2년(1111) 정월 24일조, "但以渭陽之餘波任補了". 도바 천황의 어머니 茨子는 藤原實季의 딸이었고 藤原顯季는 藤原實季의 猶子였으므로 아키스에가 도바 원의 외숙이 된다.

110) 『長秋記』 長承 2년(1133) 7월 13일조.

111) 『長秋記』 長承 2년(1133) 8월 19일조.

목'의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

나가자네가 8월 13일 모로토키를 부른 또 다른 이유는 집안일을 상의하기 위해서였다. 나가자네가 병든 몸으로 모로토키의 여동생 미나모토노 마사코(源方子)와의 사이에서 낳은 늦둥이 딸 도쿠코(得子)의 혼인 문제를 걱정하며 동분서주하는 모습은 모로토키의 일기에 자세하다. 이날 나가자네는 모로토키에게 하소연하며 '집에 재물도 없고' '권력자와 연고도 없는' 처지를 한탄하여 눈물을 흘렸다.[112] 간자키 장원의 일과 이 언급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나가자네의 말에 의하면, 그는 다이라노 다다모리가 원선의 권위를 내세워 간자키 장원의 무역에 대한 다자이후의 개입을 거부한 일에 의해 '면목'을 상실했다. 이때의 '면목'을 상실했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집에 재물도 없고', '권력자와 연고도 없'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

나가자네가 말한 '면목'은 두 가지로 읽힌다. 한 가지는 다자이후 장관으로서의 입장이다. 나가자네는 두 번째로 다자이후의 장관에 임명된 상태였다. 다자이후는 조정에게서 관리무역체제의 운영을 위임받은 관사이다. 따라서 관리무역체제의 규정에 따라 입항을 허가하고 무역품의 처분을 감독하는 것은 다자이후의 권한이었다. 물론 규정 자체가 갖는 실제적인 효력이 약화되고 편의적인 관행이 그 비중을 늘려 갔지만, 다자이후의 권위는 원칙으로서 소환될 수 있을 정도로는 남아 있었다. 다자이후의 당연한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은 다자이후 장관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었다.

물론 단지 이때의 '면목'은 권위와 명예의 문제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원에게 직접 항의를 하게 되기까지는 보다 더 간절한 현실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자이후 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문제였다. 전술했듯 11세기 초부터 다자이후 장관은 스스로를 수령국사(受領國司)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0세기 이후 조용조(租庸調) 등의 율령 세제는 형해화되고 지방에서 중앙으로의 물자 납입 체계는 수령국사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

112) 『長秋記』 長承 2년(1133) 8월 13일조.

수령국사는 국아(國衙)의 '납소(納所)'에 중앙으로 바칠 공물(公物)과 자신의 소득(得分)을 함께 보관했다가 수운을 통해 교토로 운반했다. 오오쓰(大津) 등 교토 근교의 항만에는 중앙 관인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창고가 줄지어 늘어섰고 이 창고들에 지방으로부터 올라오는 세금이나 관인들의 사적인 축재물이 보관되었다.[113]

지안(治安) 3년(1023)에는 다자이후에도 '소치 납소(帥納所)'가 존재했다.[114] 나카코미 리쓰코(中込律子)에 따르면 11세기 초 국사가 임국(任國)에서 사망할 경우 후임 국사가 임명되기까지 그 아내가 열쇠를 관리하고 국사 대리인(目代)과 함께 납소를 개폐할 수 있었는데, 다자이후의 '소치 납소' 또한 수령국사의 납소와 거의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다. 다자이소치(大宰帥) 미나모토노 쓰네후사(源経房)가 부임지에서 사망한 후 지쿠젠노카미(筑前守) 디이라노 마사요시(平理義)가 쓰네후사의 아내에게 소치 납소의 열쇠를 내놓을 것을 강요했던 사건이 그 근거였다.[115] 다자이후 장관의 사유 재산과 부의 재정은 다른 국들에서 국아의 재정과 수령국사의 개인 자산이 일체화되었던 것처럼 특별한 구분 없이 일체화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

다자이후는 전술했듯 관할 내 국들에 임시세로서의 관물을 부과하거나, 해상과 무역을 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충당했다. 다자이후는 입국한 해상에게 가장 먼저 접근해 그 신병과 화물을 장악할 수 있었고, 자율적으로 관사 선매(官司先買)를 행할 수 있었다.[116] 그러나 12세기가 되면 관내 사사에서 정기적인 무역품 거래 구조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거대 장원영주이기도 한 중앙의 대사사권문의 자금력과 유통 구조가 연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국가적 무역관리가 약화되어 가면서 다자이후가 갖는 경쟁력은 이전에 비하여 축소되었다. 애초에 국가적

113) 森公章, 「半井家本 『医心方』 紙背文書と國司の交替」, 『東洋大學文學部紀要 史學科篇』(42), 1-52, 2016, p. 9.
114) 中込律子, 『平安時代の税財政構造と受領』, 校倉書房, 2013, p. 238. 『小右記』 治安 3년(1023) 11월 7일조.
115) 中込律子, 『平安時代の税財政構造と受領』, 校倉書房, 2013, p. 196.
116) 中村翼, 「平安中期における貿易管理体制の変容」, 『待兼山論叢 文化動態論篇』(49), 1-25, 2015, p. 11.

무역관리의 대상에서 빠지는 '잡물(雜物)'의 파악을 두고 송 해상 이충(李充)과 다자이후 부관이 실랑이하고 있었던 것에서 보이듯, 상인들은 각종 명목을 대서라도 민간교역에 많은 물건을 할당하려고 노력했다.[117] 민간교역이 활성화될수록, 관사 선매가 감소할수록 다자이후가 갖는 우위성은 상실되어 갔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도착한 무역선을, 게다가 원 소유의 장원과 직접 거래할 정도로 고급인 무역품을 가지고 있었을 무역선에 대한 관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외면하기엔 너무나 큰 손실이었다.

당시는 '직(職)'이 '가산(家産)'과 일체화되어 가문을 이어 가는 기초이자 수단인 '가업(家業)'으로 여겨지는 현상이 일반화되던 시기였다. 다자이후 장관직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익이 위협당한 사건은, 일시적인 경제적 손실 이상으로 가문의 존속에 대한 위협을 의미했다. 게다가 나가자네가 가문의 존속을 걱정할 만한 일이 일어난 것은 조쇼 2년의 이 사건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 다이지 5년(1130) 4월 12일 나가자네의 장남 아키모리(顯盛)는 나가자네로부터 이어받은 수리대부직을 파면당한다. 도바 원의 심기를 상하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사건으로 아키모리가 영구적으로 실각하지는 않았지만, 아키스에 대부터 전유해 온 수리대부직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나가자네에게 큰 충격이었다.[118] 장차 자신의 뒤를 이을 장남이 도바 원의 눈밖에 났다는 것은, 대대로 원근신으로서 영화를 누려 왔던 나가자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나가자네의 '면목'의 두 번째 의미와 연결된다. 바로 원근신으로서의 입장이다. 아키스에·나가자네는 다이라노 마사모리·다다모리와 마찬가지로 시라카와·도바 원에게 봉사하는 원근신이었지만, 무사인 다다모리와 중하급 공가 귀족이며 시라카와 원의 젖형제로서 원정의 시작부터 원과 함께했던 나가자네 일족의 원정 내 입지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119] 그런데 1130년대에 들어서면서 원근신으로서의 다

117) 渡邊誠, 『平安時代貿易管理制度史の研究』, 思文閣, 2012, pp. 262-263.
118) 『長秋記』 大治 5년(1130) 4월 12일조.
119) 일개 北面의 무사에 불과했던 다이라노 마사모리가 제 때 六條院에 鞆田庄을 장원으로 만들어 바칠 수 있었던 것이 원래의 六條院 즉 六條內裏를 조영한 修理大夫 藤原顯季의 조력 덕분이었다는 견해가 있다. 마사모리가 시라카와 원의 원

다모리와 나가자네의 위상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조쇼 원년(1132)이 되면 도바 원의 어원사 득장수원(得長壽院)을 지어서 바쳤던 공적에 의해 다다모리에게 내승전의 특권이 수여되었다. 관행을 깨고 무사에게 내승전을 허가하도록 할 만큼 원이 다다모리의 '공(成功)'에 아주 만족했다는 의미였다. 시라카와·도바 원정기는 원의 총애에 실질적인 정치·경제적 성장이 달려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서로 봉사하는 주력 분야나 역할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원근신 사이의 경쟁은 존재했다.

원근신이라는 단어 자체는 상당히 모호한 명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준에 따라 원근신을 정의하고 분류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원근신을 크게 대국수령계 근신(大國受領系近臣)과 실무관료계 근신(實務官僚系近臣)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방법은 그중에서도 자주 사용된다.[120] 이 기준은 원이 국가 정무 처리를 주도할 때 즉 원의 정치적 의사전달과정에 참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와 관련되어 있다. 두 분류 중 직사(職事)·변관(弁官)의 직을 맡아 원의 정무처리에 관여하여 원선을 발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후자인 실무관료계 근신이다. 명백하게 전자에 속하는 아키스에, 나가자네 부자와 그 일족은 원의 '총신'으로서 경제적인 능력으로 원에게 봉사했을 따름이었다.[121] 나가자네가 갖는 원근신으로서의 속성이자 본질은 원과의 친연성에 기반한 관계와 그것으로부터 유지되는 경제적 봉사였다.

이를 고려하면 '집에 재물도 없고', '권력자와 연고도 없'게 되는 상황은 나가자네가 갖는 원근신으로서의 정체성에 닥친 가장 치명적인 위기이다. 이 말로부터 나가자네 스스로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난다. 나가자네가 품은 위기의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다이라노 다다모리가 원선을 근거로 간자키 장원의 관할에 속하는 배에 대한 다자이후의 개입 자체를 거부했던 사건이었다. 관직도 위계도

근신으로 유명한 藤原爲房·후지와라노 아키스에가 수령일 때 그 郞等으로서 봉사했다는 전승으로부터, 아키스에-마사모리 대의 두 가문의 지위의 차이를 잘 알 수 있다. 高橋昌明, 『淸盛以前—伊勢平氏の興隆—』, 平凡社, 1984, pp. 71-72, p. 99.

120) 元木泰雄, 『院政期政治史硏究』, 思文閣出版, 1996, pp. 118-121.

121) 白根靖大, 『中世の王權社會と院政』, 吉川弘文館, 2000, p. 63.

관습적인 계층도 훨씬 낮은 다이라노 다다모리에 의해 자신의 다자이후 장관으로서의 권위가 손상당했으며, 그 행동을 원의 명령이 정당화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원 근신으로서의 신임 경쟁에서 밀린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되었던 것이다. 오로지 원근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개인과 가문의 영달을 이루었던 것으로 평가받던 나가자네에게 이 사건은 자칫 원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는 위험성을 무릅쓰고 원에게 직접 호소해서라도 해결을 봐야만 하는 문제였다.

나가자네는 '면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나모토노 모로토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도움을 단순히 병증으로 인해 제대로 문서를 작성할 수 없던 상황에, 마침 집안일을 논의할 대상으로서 불러들인 가까운 친척 모로토키에게 문서 작성이라는 사소한 업무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로토키는 앞서 말했듯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의 수호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인물이었다. 『장추기』 본문에 드러난 그의 감상을 보면 원정에 저항하며 태정관 계열의 기존 정치 질서를 옹호하고 있다는 태도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원선으로 편의적으로 일이 처리되는 것, 근신이 원의 권위를 업고 기존 관습을 무시한 행보를 보이는 것 모두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모로토키에게 문제상황을 설명하고 아주 사소한 것이나마 협력을 구할 때, 나가자네가 내세웠던 것은 첫 번째 의미로서의 '면목'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모로토키에게 더욱 중요했던 것, 죽음을 앞둔 그 자신의 지위뿐만 아니라 나중의 자신의 가문까지 생각했을 때 더 절실했던 목적은 다자이후 장관으로서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이익 그리고 원근신으로서의 입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에서 모로토키의 입장과 나가자네의 입장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로토키가 분노한 이유와 나가자네가 면목을 잃은 이유도 다르다. 각자는 각자의 목적이 있었고,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었다.

이 사건은 결국 나가자네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인지, 『장추기』 조쇼 2년 8월 13일 기사에 언급된 이후 사건 전개에 그 이상의 진전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현전하는 다른 문헌사료에서도 이 사건의 뒷이

야기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전모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나가자네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고자 한 조치로부터 이 사건의 성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나가자네가 다다모리의 지시로 인해 면목이 실추되었다며 원에게 제소하려고 결정하게 된 것은 이 사건이 원이 본소로 있는 원령 장원 간자키 장원과 그곳의 관리자로 있는 원근신 다이라노 다다모리와 관련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원의 가정에 속하는 일이었다는 뜻이다.

이때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조쇼 2년(1133) 9월 7일부 다이라노 다다모리 구다시부미가 현전한다.[122] 수신인은 원령 장원 도모다 장원의 장관들(鞆田御庄司)이며 발신인은 다이라노 다다모리 본인이다. 다이라노 마사모리가 에이초(永長) 2년(1097) 도모다 장원을 장원으로서 등록(立券)할 때부터 도모다 장원의 지배를 둘러싸고 동대사(東大寺)와 육조원(六條院)은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다. 동대사 측은 육조원 령 도모다 장원에 속한 요리우도(寄人)가 동대사 령에 속하는 도모다 장원의 전지를 경작하면서도 연공·지대 납부, 소역 근사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 사태를 용인하는 도모다 장원의 장사들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모다 장원의 영주(預所) 다다모리가 동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모다 장원의 장사를 단속하고자 내린 것이 이 구다시부미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말씀하신 바가 위와 같다. 잘 알아듣고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로써 내린다(所仰如件, 宜承知勿違失, 以下)'라는 구다시부미 양식의 상투어구가 쓰였다. 작성자인 다이라노 다다모리가 '말씀(仰)'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므로, '말씀'의 주인은 원령 장원 도모다 장원의 본소인 도바 원이 될 것이다.

『장추기』 8월 13일 기사에서 언급된 구다시부미 역시 비슷한 형식이었을 것이다. 모로토키는 '장령으로 하라고 분부를 내리셨다고 하니(可爲庄領之由, 被仰下條)'라고 기록하여 기사의 다른 부분에서 나가자네나 다다모리의 행위를 묘사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던 존경 표현인 '被'를 사용하고 있다. '비젠노카미 다이라노 다다모리 아손이 직접 구다시부미

122) 『平安遺文』 2285호 長承 2년(1133) 9월 7일 「備前守平忠盛下文」.

를 작성하여 원선이라고 하면서(備前守忠盛朝臣自成下文、號院宣)'라고 쓴 구절로부터, 그가 원선이 정말로 원에게서 나왔다는 결론을 피하고 있는 태도가 보인다. 따라서 '분부를 내리셨다'는 존경 표현은 모로토키 본인이 내심 도바 원의 명령이 있었음을 긍정했던 결과거나, 아니면 나가자네가 다다모리의 구다시부미의 원본 혹은 복사본을 보여주었고 그것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했던 것 둘 중 하나라고 보인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 명령의 주체는 도바 원이라고 읽어야 하며, 그 수신인으로는 간자키 장원의 장사들이 오는 게 자연스럽다.

따라서 『장추기』에 언급된 '다이라노 다다모리의 구다시부미'는 가장으로서 가산인 원령 장원 간자키 장원에 관한 일을 가사(家司) 즉 원사(院司)인 다이라노 다다모리에게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다다모리가 원령 장원 소속의 현지 장관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는 식의 가정(家政)의 체계가 작동했던 결과물이었다고 봐야 한다. 나가자네가 원에게 직접 항의를 하게 된 것은 나가자네 자신이 유력한 원근신이어서이기도 했지만, 단순히 원근신으로서 원의 신임 경쟁에서 밀려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는 모로토키의 도움을 얻기는 어려웠다. 행위 자체에 당사자가 아닌 모로토키도 납득할 만한 합리성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바로 간자키 장원이 다자이후의 개입을 거부했던 것은 원의 가정(家政)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였기 때문에 그 최고 책임자인 원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 납득이 되었던 것이다. 나가자네가 원에게 직접 상소를 올리고자 한 대상은 국정 지도자인 원이 아니라, 간자키 장원을 가산으로 소유하며 운영하고 있는 가장인 원이었다. 이러한 결론은 원의 '가정'으로서 이루어지는 무역, 즉 원이 관여하는 대외무역의 존재를 선명하게 부각한다.

맺음말

『장추기』 조쇼 2년 8월 13일의 기사는 원의 권위를 내세운 간자키 장원측과 관리무역체제의 지휘소인 다자이후 사이에 벌어진 무역권 갈등 사건을 기록했다. 이 사건은 일본의 고대 관리무역체제의 해체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일찍부터 무역사 연구에서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오직 『장추기』 조쇼 2년 8월 13일 기사에서만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서술자의 관점이 서술 내용을 강하게 규정하는 고기록의 자료적 특성이 이 사료를 보다 풍부하게 해석하는 것을 방해해 왔다. 그 결과 간자키 장원측이 다자이후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게 된 것을 다이라노 다다모리라는 신흥 세력의 돌출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태도가 오랫동안 이 사건을 해석하는 기본 전제가 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원 미마야의 유통기능에 주목함으로써 간자키 장원의 원이 관여하는 대외무역의 거점이었을 수 있다고 본 근년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이 기본 전제를 수정해 보고자 했다. 미나모토노 모로토키의 입장과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한 후, 이 사료를 다시 읽어 보는 작업을 시도했다. 그동안 이 사료는 12세기 무역상황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자료이자, 다이라노 기요모리 이전 헤이시의 무역 참여를 보여주는 유일한 사료이고, 다자이후 관리무역체제와 장원의 무역권이 정면으로 충돌했음을 보여주는 단 하나뿐인 사례라는 점에서 무역사 연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제도사의 맥락 안에서 논의가 깊어지기만 할 뿐, 당시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이 사료를 해석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미나모토노 모로토키로 대표되는 전통적 질서와 다이라노 다다모리로 대표되는 새로운 질서의 경합을 설명하면서도, 실제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후지와라노 나가자네의 입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에서 그 실책은 명백하다.

『장추기』 기록으로부터 미나모토노 모로토키의 관점을 상대화하는 작업은 12세기 초의 다자이후 관리무역체제의 위상을 확인함으로써 수행되었다. 12세기 초 다자이후 관리무역체제는 매우 약화된 상태였으며, 모로토키가 다다모리에 대한 비난의 근거로 삼았던 무역의 가부는 선지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다자이후 현지 관인들도 빈번하게 위반하고 있던 것이 현실이었다. 또 간자키 장원측에서 원선의 권위를 빌려 결국 다자이후 장관이 항의에 나서게 될 정도로 무리하게 다자이후의 개입을 거부하게 된 것은, 다자이후 관리무역체제의 약화로 인해 무역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미나모토노 모로토키의 관점과 당시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모로토키의 서술에서 구체적인 문제상황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다이라노 다다모리라는 한 근신이었다. 그러나 다이라노 다다모리는 그 아버지 다이라노 마사모리 대부터 시라카와·도바 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비호를 받으며 성장해 왔다. 특히 후일 대송무역의 전성을 이끄는 헤이시 정권의 토대가 된 서국의 제해권 뒤에는, 시라카와·도바 원이 있었다. 원령 장원 간자키 장원의 성격을 고려하면, 다이라노 다다모리의 독단성·일탈 행위로 이 사건의 원인을 수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다이라노 다다모리의 구다시부미는 근신이 월권을 행사해 원선을 참칭했다기보다는 실제로 그 명령을 전달하는 것에 가까웠다. 이처럼 원근신 다이라노 다다모리의 성장과 당시의 정치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모로토키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다이라노 다다모리라는 한 근신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원, 그리고 원이 주도하는 파격으로 가득한 새로운 정치 질서인 원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서술자 모로토키의 입장이었다.

이 사료를 가능한 한 풍부하게 활용하여 이 사건의 의미를 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후지와라노 나가자네의 입장이다. 나가자네는 그동안 모로토키와 함께 다다모리에게 적대하는 공가 귀족으로 묶여 왔던 듯하나, 아주 대표적인 시라카와·도바 원정기의 원근신이었다. 오히려 원과의 관계만 놓고 보자면 모로토키보다는 다다모리와 가까울 수도 있는 인물

이었다. 나가자네는 단순히 다자이후 장관으로서 권위가 실추되었다는 것 이상으로, 가문의 존속 자체를 걱정하고 있었다. 급속히 성장하는 또 다른 원근신 다다모리에게 원근신층 내부의 신임 경쟁에서 밀린 모양새가 되었을 뿐 아니라, 다자이후 장관으로서의 직을 수행하며 얻을 수 있는 수익까지 침범당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경제적인 봉사에 주력하고 있었던 원근신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원근신으로서의 지위 유지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요소들이었다. 나가자네가 다다모리의 구다시부미를 문제삼고 이를 원에게 항의하고자 한 것에는 나가자네 나름의 복잡한 입장과 목적이 있었다.

간자키 장원 측이 무역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다자이후의 개입을 거부한 것은, 원령 장원의 운영에 관한 일을 본소인 원이 결정하여 원사인 다이라노 다다모리를 통해 현지의 장관들에게 전달해 시행한 사건이었다. 다이라노 다다모리가 임의로 행동한 것을 원이 묵인했을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도 이 사건이 원의 가정으로서 처리되었다는 것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볼 때 이 사건은 원이 가정의 논리를 앞세워 다자이후 관리무역체제라는 국정의 절차를 압도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장추기』 조쇼 2년 8월 13일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입장을 각각 분석함으로써 한정된 사료를 가능한 한 풍부하게 이해하고자 시도했다. 그 결과 시라카와·도바 원정기에 원이 마치 다자이후 부근의 사사(寺社)에 접근해 무역이익을 추구하던 대사사권문과도 유사한 입장에서 대외무역에 관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고·중세 이행기의 무역이라는 행위는 문헌사료에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기 힘들고, 무역 자체만을 주제로 하여 작성된 문헌도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많지 않은 양의 사료를 통해 이 시기의 무역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더욱 충실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로 원과 원근신의 관계를 중심으로만 『장추기』 조쇼 2년 8월 13일 기사를 분석했지만, 이와 같은 일본 국내 정치적 요소 외에 경제·문화·국제환

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더해진다면 12세기 초 무역상황이 보다 풍부하게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사료

『鯨珠記』 大治 2년(1127) 5월 26일조.(平田俊春, 『私撰國史の批判的研究』, 國書刊行會, 1982, pp. 568-574.)

『高野雜筆集』 (田中史生, 「唐人の對日交易ー『高野雜筆集』下卷所收「唐人書簡」の分析からー」, 『経濟糸』(229), 11-23, 2006.)

『公卿補任』(新訂增補 國史大系, 吉川弘文館, 2000)

『觀音玄義疏記』(『大宰府 · 太宰府天滿宮史料』 卷6)

『宮寺緣事抄』 (東京帝國大學文學部史料編纂所 編, 大日本古文書 家わけ四ノ五, 1913)

『權記』(藤原行成 著, 史料大成 續編 第35, 內外書籍, 1939)

『大宰府 · 太宰府天滿宮史料』 卷6(竹內理三 編, 太宰府天滿宮, 1970)

『大宰府 · 太宰府天滿宮史料』 卷7(竹內理三 編, 太宰府天滿宮, 1971)

『兩卷疏知礼記 · 上』(『大宰府 · 太宰府天滿宮史料』 卷6)

『令義解』(黑板勝美, 國史大系編修會 編. 吉川弘文館, 1969)

『類聚三代格』(黑板勝美 編, 新訂增補 國史大系, 2000)

『扶桑略記』(國史大系 第6卷, 経濟雜誌社, 1897-1901)

『肥前國神崎莊史料』(瀨野精一郎 編, 吉川弘文館, 1975)

『新儀式』(塙保己一 編, 群書類從 第5輯, 1902)

『吾妻鏡』(正宗敦夫 編, 日本古典全集刊行會, 1930)

『雲州往來』(藤原明衡 著, 塙保己一 編, 群書類從 第9輯, 1902)

『日本三代實錄』(経濟雜誌社 編, 國史大系, 1897-1901)

『長秋記』(源師時 著, 笹川種郎 編, 史料大成, 1934)

『除目部類記』(『大宰府 · 太宰府天滿宮史料』 卷6, 1970)

『朝野群載』(近藤瓶城 編, 史籍集覽, 近藤出版部, 1902-1926)
『尊卑分脈』(黑板勝美 編, 吉川弘文館, 1983)
『中右記』(藤原宗忠 著, 增補史料大成, 臨川書店, 1984)
『職原抄』(塙保己一 編, 群書類從. 第四輯, 1898-1902 2版)
『參天台五台山記』(成尋 著, 近藤瓶城 編, 史籍集覽 26, 1902-1926)
『平範國記』(平範國 著, 瀨野精一郎 編, 肥前國神崎莊史料, 吉川弘文館, 1975)
『平安遺文』(竹內理三 編, 改訂九版 東京堂出版, 1998)

이하 사료는 '東京大學史料編纂所 大日本史料總合データベース'에서 열람 가능한 『大日本史料』와 『史料稿本』의 판본을 이용했다.
『大日本古文書』
『石淸水文書』
『小右記』
『御堂關白記』
『殿曆』
『貞信公記抄』

2. 연구서 및 단행본

하네다 마사시 엮음, 고지마 쓰요시 감수, 조영헌·정순일 옮김, 『바다에서 본 역사ㅡ개방, 경합, 공생 동아시아 700년의 문명 교류사ㅡ』, 민음사, 2018.
榎本涉,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九～十四世紀—』, 吉川弘文館, 2007.
榎本涉, 『選書日本中世史 4 僧侶と海商たちの東シナ海』, 講談社, 2010.
高橋昌明, 『淸盛以前—伊勢平氏の興隆—』, 平凡社, 1984.

高橋昌明, 『院政期の内裏 · 大内裏と院御所』, 文理閣, 2006.
渡邊誠, 『平安時代貿易管理制度史の研究』, 思文閣, 2012.
白根靖大, 『中世の王權社會と院政』, 吉川弘文館, 2000.
山内晋次, 『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 吉川弘文館, 2003.
森克己, 『新訂 日宋貿易の研究』, 國書刊行會, 1975. (초출 森克己, 『日宋貿易の研究』, 國立書院, 1948)
五味文彦, 『院政期社會の研究』, 山川出版社, 1984.
玉井力, 『平安時代の貴族と天皇』, 岩波書店, 2000.
元木泰雄, 『院政期政治史研究』, 思文閣出版, 1996.
田中文英, 『平氏政權の研究』, 思文閣出版, 1994.
佐藤進一, 『日本の中世國家』, 岩波書店, 1983.
中込律子, 『平安時代の税財政構造と受領』, 校倉書房, 2013.

3. 연구논문

榎本涉, 「書評 渡邊誠著 『平安時代貿易制度史の研究』」, 『社會経濟史學』79(3), 439-441, 2013.
大庭康時, 「博多綱首の時代」, 『歷史學研究』(756), 2-11, 74, 2001
林文理, 「博多綱首の歷史的位置ー博多における權門貿易」, 『古代中世の社會と國家』, 淸文堂出版, 1998.
森公章, 「半井家本 『医心方』 紙背文書と國司の交替」, 『東洋大學文學部紀要 史學科篇』(42), 1-52, 2016.
石井正敏, 「肥前國神埼莊と日宋貿易ー『長秋記』長承二年八月十三日條をめぐってー」, 『石井正敏著作集 3 高麗 · 宋元と日本』, 勉誠出版, 2017. (초출 皆川完一編, 『古代中世史料學研究』下, 吉川弘文館, 1998.) pp. 32-37.

石井進, 「大宰府機構の変質と鎮西奉行の成立」, 『史學雜誌』68(1), 1-37, 1959.

槇道雄, 「院政時代における院領荘園支配機構とその性格」, 『學習院史學』(18), 1-31, 1981.

田中篤子, 「大宰帥・大宰大貳補任表」, 『東京女子大學紀要論文』26・27, 44-93, 1973.

田中史生, 「唐人の對日交易ー『高野雜筆集』下卷所收「唐人書簡」の分析からー」, 『経濟糸』(229), 11-23, 2006.

正木喜三郎, 「大宰府領形成の歴史的背景—大宰府の変質と荘園・公領制—」, 『東海大學紀要 文學部』(52), 27-68, 1990, pp. 54-58.

中村翼, 「平安中期における貿易管理体制の変容」, 『待兼山論叢 文化動態論篇』(49), 1-25, 2015.

河野房男, 「白河院近臣団の一考察ー藤原長實を中心としてー(一)」, 『日本歴史』(152), 20-38, 1961.

日文要旨

白河・鳥羽院政期
院の對外貿易と院近臣

-『長秋記』長承二年八月十三日記事を中心に -

李昭賢

東洋史學科

ソウル大學校大學院

『長秋記』長承二年八月十三日の記事は院の權威を掲げた神崎庄と古代管理貿易体制の中心機構である大宰府との間で起きた貿易權紛爭を記錄した。神崎庄は九州西北部の肥前國神崎郡にあった沿海庄園で、九世紀頃より院より院へ相伝してきた本所權の强い院領庄園であった。長承二年神崎庄は宋商周新の貿易船が同庄の管轄に屬すると主張し、院宣の權威を以って大宰府の介入を排除しようとした。十世紀半ば頃完成したとされる古代管理貿易体制の規定によると、日本に來着した貿易船は大宰府の檢領を経て朝廷の命令を待ち、朝廷の官司より必要とされる貿易品を朝廷に優先的に販賣するのが原則であった。神崎庄は院政期の最高權力者である院を本所とする院領庄園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國家權力による管理貿易体制の規定に正面から對抗していた。この事件は古代の秩序が変質し消滅していく古中世移行期の像をよく示すとともに、院政期の王權の執行者である院が國家的貿易管理の外側から對外貿易に接近していく姿を照明する。

今までの先行研究は『長秋記』長承二年八月十三日記事を國家的貿易管理の変質と終了という枠組みの中でのみ解釋してきた。そのため、神崎庄

が大宰府を排除しようとしたことをすぐに同庄の預所で院近臣であった平忠盛の逸脱的な利益追求活動へ収斂させる傾向があった。近年、平忠盛だけではなくその背後にいた院にまで視座を擴張しようとする試みがなされ、事件の意味がより大きい脈絡の中で論じられるようになった。但し、事件を捉える焦点そのものは、依然として平清盛時代の日宋貿易の土台を築いた、院への奉仕を通じて中央政界での成功を成し遂げた武士という平忠盛個人に留まっている。しかしながら、忠盛個人の突出した特別な性質にだけ集中してしまうと、十二世紀初神崎庄において院が主導する貿易が行われていたことを語るこの史料の意味を十分に理解することは難しい。大宰府と大宰府が管轄する博多周辺の情勢・院廳内部の政治地形・院權力の權門としての側面など、白河・鳥羽院政期の歴史像のいろんな側面を含めて考察する必要がある。

『長秋記』記事に登場する人物たちの當時の立場を分析するのは長承二年八月十三日記事を支配している源師時の觀点を相對化させ、記事の意味を考え直させる。今まで『長秋記』の記主源師時と最初問題提起者の大宰權帥藤原長實の立場は新興勢力平忠盛と對峙する既成秩序の擁護者として捉えられてきた。しかし、藤原長實は院近臣として院に仕えることにより本來の家格を超えた官位昇進を成し遂げたという点で、むしろ平忠盛と同じ範疇に入るべき人物である。したがって、單純に長實が忠盛と對立しているという事實だけで、彼を師時と同様の立場に立っている人物とみなすのは妥當ではない。

第一の手がかりは源師時が抱いていた問題意識である。師時が『長秋記』記事の中で平忠盛を批判する根據として擧げたのは、安置・廻却は宣旨に從うべきだという原則の違反であった。十二世紀初に觀察される大宰府管理貿易体制の衰退様相は、文面通りこの原則の違反が問題の原因ではる可能性が低いことを示唆する。すでに大宰府の府官さえ朝廷の廻却官符に從わない事態が頻發した。また、抑も神崎庄が院宣という强力な權威を以って大宰府の介入を拒否しようとしたのは大宰府が管内の國衙・寺社を統制する能力を失ったためであった。すなわち、大宰府が規定通り管理貿

易の手續きを踏むようになると、貿易商人と貿易品の安全を保証されがたいほど、大宰府管内の混亂が深刻化した。取引の安全と貿易利益を保護するため、神崎庄は大宰府の長官に抗議されるのが當然なぐらいの無理を冒してても、大宰府の介入の全面拒否に出たのである。師時の批判は平忠盛という個人より、その背後にいる院、ひいて專制權力を振るい既存の秩序を破壞している院政という新しい政治秩序に向かっていた。

平忠盛は白河・鳥羽院の庇護下で海上勢力として成長した。平正盛以來、伊勢平氏が西國の制海權を握るようになったことには朝廷よりの追討使補任の影響が大きかった。追討使としての權威を背景に西國の海上勢力を平氏のもとに編成することにより海上交通を掌握し、水兵を確保した。忠盛の海賊追討使補任には白河・鳥羽院の積極的な支援があった。正盛・忠盛時期の平氏の政治的地位の上昇も同様であった。忠盛時代の院と平氏の關係を考えると、長承二年神崎庄の事件もまた、忠盛が直接的あるいは間接的に院の意向を奉じてそれを實行に移したことだったと見るべきである。師時の叙述が示唆するように、平忠盛が院近臣として院の權威を借り、既存秩序を無視する逸脱的な利益追求活動を行ったのではない。院宣を僭称するところか、むしろ院の指示または默認が忠盛の背後にあった可能性が高い。

師時の叙述を相對化することにより今まで解釋から欠落されがちであった事件の當事者、藤原長實の立場についての分析が試みられるようになった。既存秩序を破壞する院政に對する批判という師時の問題意識とは別に、この問題を「問題」にさせた長實が振りかざしたのは「面目」の失墜であった。この「面目」は大宰府の長官としての權威・院近臣としての立地兩方を含む言葉であった。特に長實の個人的な狀況と彼の一族の當時の政治的立場を考慮すれば、長實は前者より後者に重きをおいていたと言えよう。また長實がこの問題の解決のために院へ訴えようとしたという事實は神崎庄の大宰府排除措置が院の家政の次元で行われたものであったことを意味する。

『長秋記』長承二年八月十三日記事は院が神崎庄を據点として權門のよ

うな立場より對外貿易に參加していた可能性を見せるほとんど唯一な史料である。記主師時の觀点から一歩離れて他の登場人物である院近臣・平忠盛と院近臣・藤原長實の立場をそれぞれ分析すると、院が參加する對外貿易の可能性がより鮮明に浮かんでくる。神崎庄のこの事件は院政期に加速した中央・地方の政治的構造変化の産物であった。古代の管理貿易体制は十一世紀より変質を始め、十二世紀に入ると消滅を迎える。これにより、貿易管理の中樞であった大宰府にも変化が生じ、大宰府内部とその管轄領域において大規模な勢力再編が行われ、權門貿易の基本構造が形成された。ちょうどこの時期に院も、十三世紀以降の對外貿易の主役になった大寺社權門のように、家産機構と家司を以って對外貿易に參加した。神崎庄という據点を通じて行われた院の對外貿易は院權力の公私混淆的な性格を照明する一つの事例を提供する。

keywords：院政, 院近臣, 大宰府, 對外貿易, 神崎庄, 平氏
Student Number：2018-21562